

第 43 號

# 速記界



社 團 法 人 大 韓 速 記 協 會

# 速記界

2007 - 43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速記界

## Contents

>>> >>> >> >> >>>>

### 권두언

4 | 고흥길(대한속기협회 회장)

### 논단

6 | 수문에 대한 오해 · 홍기표

### 세미나...

34 | 2006년 속기협회 학술세미나를 돌아보며 · 오근순

### 인터스테노

38 | 2006 INTERSTENO 중앙위원회 참가 보고/국제부

43 | 2007 INTERSTENO 총회 참가신청안내/국제부

### 새 의자

44 |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을 받고 · 정순화

49 | 안마가 그리워지는 계절 · 김덕진

### 회원동산

56 | 아버지와 딸 · 권영찬 · 권아영

※ 표지설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고·국보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국보 제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현존하는 <조선왕조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병화를 모면한 전주사고본이다. 이는 그 후 강화의 마니산사고를 거쳐 정족산사고에 간직되어온 원본을 비롯하여 임진왜란 이후 전주사고본에 의거하여 새로 찍은 3분 중 봉화 태백산사고에 간직되어 온 신인본, 그리고 그때의 교정본으로 오대산사고에 간직되어 온 것의 잔존본과 파지로 존치되어 온 것을 장책한 잔어본에 해당한다.

59 | 호주 · 뉴질랜드 북섬 여행기 · 장미경

68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 김지숙

72 | 꽃피는 봄이 오면 · 김현수

### 기자수첩

76 | 내가 직업병을 가졌다고? · 이경진 기자

82 | 대법원을 찾아서 · 박윤혜 기자

87 | 법정기록방식의 변화 동향 · 권초롱 기자

### 새내기 속기사

94 | 꿈은 이루어진다 · 최성향

99 | 나의 멋진 인생 · 서상경

103 | 21세기의 조선왕조실록을 꿈꾸며 · 유희정

### 협회동정

107 | 제40회 정기총회

108 | 편집후기



● ● ●  
권 두 언



회장 고흥길

친애하는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고흥길입니다.

속기협회는 우리나라의 지난 의정사와 역사를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나라와 민족의 명운과 함께 사관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사를 돌이켜 볼 때 어떠한 정치적 간섭이나 왕명을 비롯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한 사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이 후대에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된 것처럼 속기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역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사관이요, 역사의 기록자입니다.

그런 속기인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빌게이즈는 자신의 저서인 「생각의 속도」에서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컴퓨터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방식, 가치관,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변화해 갈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의 웹 생활방식에 적응하지 못하면 정보화시대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자생존의 원리는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사라지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간 국회에 집중되었던 속기 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로 인해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속기 인력 또한 많은 증가가 있었지만 아직도 속기사가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최근 법원에서는 공판 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이 확산됨에 따라 속기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올해 2월부터 법정녹음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공판기록을 녹음파일로 대체하는 등 속기협회도 현대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첨단과학기술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자체연수를 통한 재교육 등 속기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기는 청각장애우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종이매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효용가치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이 현실의 도전을 능가하는 진취적이고 헌신적인 사고방식을 발휘한다면, 모든 도전들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회원 모두가 새로운 정신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함은 물론 협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문에 대한 오해

흥 기 표

## 1. 자구 정정과 수문

속기 노트를 들여다보며 한참 바쁘게 번문 중인데 편집실 선배로부터 호출 전화가 왔다. 속기 원고에 무슨 큰 실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편집실을 찾아갔다. 선배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이봐, 자네는 수문이라는 것도 몰라? ‘변소’가 뭐야, ‘변소’가!”

“.....?”

“국회 회의록의 품위도 생각해야 할 것 아냐? 이런 품위 없는 말은 ‘화장실’로 수문을 해 줘야지.”

수문에 대해 얘기하다가 한 동료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다. 지금은 정년 퇴직하신 모 선배로부터 그런 호통을 들었다는 것이다.

필자 또한 부무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다. 말한 그대로 ‘순사 나부랭이들’이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주무는 이를 ‘말단 순경들’로 고쳐 놓는 것이었다. 속되거나

천박한 말은 품위 있는 말로 고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수문을 하는 이유는 음성언어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 내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란 얘기다. 그러면 속되거나 천박한 말을 그와 유사한 의미의 품위 있는(?) 말로 순화시켜 주는 것 역시 수문인가? 그렇게 하면 음성언어의 의미가 보다 정확히 살아나는가? 아니다! 오히려 말맛(취향스)은 전혀 달라진다. 말맛에 따라 그 의미에도 미세한 차이가 나거나, 때로는 의미가 변질되기도 한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 수문이 아니라 자구 정정이다. 그리고 속기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그러한 자구 정정은 속기록의 변조요, 왜곡이다.

속되거나 천박한 말뿐만 아니라 말실수를 했거나 유식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속기록은 말한 대로 기록이어야 한다. 품위 없는 말을 품위 있는 말로 고쳐 주는 것은 바로 품위 없는 사람을 품위 있는 사람으로 치장해 주는 것이다. 말실수를 실수하지 않은 것으로 고쳐 주는 것은 발언자의 인간적인 약점을 감추어 주는 것이요, 유식하지 못한 용어를 유식한 용어로 바꾸어 주는 것은 발언자를 유식한 사람으로 포장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변조, 왜곡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도 속기록 원고를 검토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구 정정을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솔직히 실무 속기사 시절 교양(教養)과는 거리가 먼 어휘나 실수한 말, 무식한 말, 어불성설의 발언을 말한 그대로 기록하려면 왠지 찝찝하고 무언가 나중에 책임 문제가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록들은 검토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지적을 받곤 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거친 말이 오고간 발언들은 사정없이 붉은 줄이 쳐져서 되돌아왔다.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수문이 아닌 자구 정정이나 발언의 삭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던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도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일





까? 현행 국회법 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서는 자구 정정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 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 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④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 법조문에 의하면 자구 정정은 허용하되,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거나(①항) 내용을 삭제하는 자구 정정은 불가능하다(③항). 심지어는 발언자가 자구 정정이나 취소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을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자구 정정이나 취소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③항). 자구 정정은 분명히 발언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발언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자구 정정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자구의 정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 ① 발언한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가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구의 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의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구의 정정은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조문·숫자 등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2. 특정한 어휘를 유사한 어휘로 변경하는 경우
3.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4.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

자구 정정은 자구 정정 요구서를 제출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①항), 그 범위 또한 열거한 네 가지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②항)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구 정정의 허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속기사의 실수로 인한 기록의 착오까지도 자구 정정 요구가 없으면 고쳐 줄 수 없게(제②항 4호) 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법이나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속기사에게는 자구 정정의 의무도 없고 권한도 없다. 발언 당사자의 요구와 함께 국회의장이나 각 상임위원장의 허락에 의해서만 자구 정정이 가능한 것이다. 한마디로 속기사 임의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자구 정정을 하는 것은 속기사의 월권이다. 발언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의원실이나 당일 정부 기관 등의 참석자에게 연락하여 고쳐 줄 필요도 없다. 설사 당사자들이 직접 자구 정정을 요청해 오더라도 먼저 자구 정정 요구서를 제출하여 그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구 정정에 대해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말한 대로'의 속기록 작성 원칙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발언상의 오류가 나타나면 친절하게도 일일이 의원실이나 관계 기관에 연락을 해서 고쳐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당사자들이 연락해 오



면 아무런 이의 없이 원하는 대로 고쳐 주고 있다. 속기사가 ‘분명히 잘못된 발언’임을 이유로 고쳐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마치 속기사의 판단에 의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론이라도 제기하면 ‘분명히 잘못된 발언인데 이런 걸 어떻게 그대로 두느냐’고 오히려 정색을 한다. 그리고 그걸 수문이라고 주장한다.

“97년 외환 위기 당시 36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고가 지난 1월 15일에는 210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서 세계 4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36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21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분명 발언상의 오류다. 그러나 ‘2100만 달러’를 ‘2100억 달러’로 자구 정정해 줄 법적 권한이 속기사에 게는 없다.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한다. 이런 기록을 그대로 두면 속기록을 읽는 이들이 속기사를 무식하다고 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속기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자구 정정이 연쇄적으로 또 다른 오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예문을 들어 설명해 보자.

“자주국방도 괜히 불필요하게 미국한테 **얼굴 붉히고 덤벼들었다**가 실제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 다 해 주고, 그리고 국방비 잔뜩 올리겠다, 이래 놓은 것 아닙니까?”

제258회 국회 제8차 본회의록 편집을 보다가 눈에 띈 한 구절이다. 담당 속기사에게 전화를 했다. “얼굴 ‘붉히고’ 덤벼들었다가”라고 기록했는데 혹시 “얼굴

‘붉히겠다고’ 덤벼들었다”라고 발언하지 않았느냐 물었다. 그랬더니 발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법에 맞지 않은 발언이라 문법에 맞게 고쳐 주었노라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에 대해 ‘얼굴 붉힐 것은 붉히겠다’ 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발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미국에 대해서 ‘얼굴 붉히고 덤벼들었다’ 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속기사의 판단 착오에 의한 자구 정정은 때로 이렇게 엉뚱한 오류를 생산하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오류를 생산하지 말고 말한 대로만 기록할 일이다. 발언자의 실수는 실수대로 의미가 있다. 실수를 통해 발언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속기사의 실수는 영원히 기록의 오류로 남게 된다. 그 오류로 인해 발언의 의도가 왜곡되거나 무식한 발언으로 변질이 된다면 그것은 두고두고 발언자에게는 결정적인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속기사들이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인지하여 바로잡아 준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거나, 모든 실수를 인지하는 대로 바로잡아 준다면 발언자들은 어떠한 실수도 없는, 거의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속기록의 변질이 아닐 수 없다. 국회라는 곳도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회의체인 이상 국회 속기록 또한 사람 냄새가 나야 한다. 그러자면 어떠한 경우에도 속기록은 말한 대로의 기록이어야 하는 것이다. 말한 대로의 기록, 이것은 이 시대 사관으로서 우리 속기인들이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할 속기록 작성의 대원칙이다.

## 2. 잘못된 수문이 오류를 초래한다

속기록을 작성하면서 음성언어를 일언일구 그대로 다 기록할 필요는 없다. 걸러내야 할 말들이 있는 것이다. 의미 없는 중복 발언이나 군더더기 말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상당수의 속기인들은 수문에 대해 무언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



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번문을 하면서 몇 글자라도 덜 쓰는 것, 그것이 곧 수문이요, 그것이 또 수문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덜 쓰고 도 발언 내용만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래서인지 청취 능력이 아직도 한참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자꾸만 어휘나 어투에 손을 댈다. 그것도 거의 기계적으로 말이다. 그로 인해 속기록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문체까지도 훼손을 시키곤 있다. 그 실태를 한번 살펴보자.

- ① 이 문제에 **대해**(→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② **시기적**(→ 시기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 ③ 우리는 경제성장도 **달성했고**(→ 달성하였고)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 ④ 예산을 **이·전용해서**(→ 이·전용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사업에 써 버렸습니다.
- ⑤ 러시아 경협차관 활용 문제는 철도 개선과는 연계시키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않느냐) 생각됩니다.

‘몇 글자 덜 쓰기’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먼저 ‘대해서’ 처럼 ‘서’로 끝나는 어미는 기계적으로 이를 생략해 버린다. 그래서 ‘교훈 삼아서’ ‘가결되어서’는 ‘교훈 삼아’ ‘가결되어’가 된다. ‘적인’도 마찬가지다. ‘건설적인 의견’ ‘근시안적인 처방’은 무조건 ‘건설적 의견’ ‘근시안적 처방’이 된다. ‘하였고’는 ‘했고’가 되고, 보조용언 ‘가지고’는 무조건 어미 ‘서’로 바뀌든지 아예 삭제되어 버린다. 그리고 ‘않느냐’는 ‘않냐’로 줄어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절대로 반대입니다’는 ‘절대 반대입니다’로, ‘그럴 때에는’은 ‘그럴 때는’으로 줄여 쓰는 이들도 있다. 어쨌든 한 자라도 덜 쓰고 일을 빨리 끝내려는 심리가 알게 모르게 작용하다 보니 이런 식의 줄여 쓰기 형태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러한 수문 아닌 수문으로 인해 속기록의 생명인 정확성이 변질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 수문보다 청취 능력이 우선이다

- ① 국가 경영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여 IMF 관리 체제하에서 어려운 구조 조정과 구조 개편을 추진해 오면서 아주 중요한 한두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문 ①에서 “국가 경영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여”는 “국가 경영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접근하여 가지고” 였다. 보조용언 ‘가지고’ 석 자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이 ‘접권’ 을 ‘접근’ 으로 오청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 ② 올바른 사상이나 철학과 인적 구성이 안 되면 성립 못 합니다.

위 내용을 문법적으로 잘 살펴보자. 사상이 안 되고, 철학이 안 되고, 인적 구성이 안 되면 성립 못 한다? 도대체 사상이 안 되는 건 뭐고, 철학이 안 되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성립 못 한다는 것인가? 원 발언을 살펴 보았다.

- ⇒ 올바른 사상이나 철학이 정리되고도 인적 구성이 되지 않으면 성공 못 합니다.

‘성공’ 을 ‘성립’ 으로 오청한 상태에서 ‘되지 않으면’ 을 ‘안 되면’ 으로 줄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리하고도’ 란 말은 왜 기록을 안 할 것일까. 무심코



번문을 놓친 것인지 의도적으로 빼 버린 것인지 그건 모르겠다. 다만 그러한 실수와 잘못된 수문으로 인해 음성언어는 무슨 말인지 모를 문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③ 우리 홍익인간 인본주의 사상은 민족과 개인과 인류를 사랑하는 사상들 국제성을 분명히 띠고 있는 이즘입니다.

⇒ 우리 **홍익인간(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은 **개인**과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성을 분명히 띠고 있는 이즘입니다.

각괄호(( )) 안의 조사 ‘이라는’ 은 발언상 생략된 단어를 살려 놓은 것이다. 의미 전달이 명료하지 못할 때 음성언어에서 생략된 말을 살려 주면 문자언어의 내용의 이해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이는 다음에 문법론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속기록의 문장과 다시 살려 낸 문장을 비교해 보자.

“민족과 개인과 인류를 사랑하는 사상들”

“개인

과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 기법부터 대조적이다. 발언자가 사용한 어법은 ‘개인→민족→인류를 사랑하는 사상’ 으로 표현이 점층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속기록상에는 ‘민족, 개인, 인류를 사랑하는 사상들’ 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단어만 나열하는 식으로 번문을 해 놓았다. 같은 계열의 단어를 나열하더라도 그 나열 속에는 발언자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그 순서는 속기사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발언의 효과나 의도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를 “~ 사상들” 로 줄여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대로는 덜 쓰기도 내용은 다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러나 이 또한 무슨 말인지 모를 횡설수설 수준의 발언이 되고 말았다.

## (2) 속기록의 작성은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수문의 이름으로 몇 자씩 덜 기록하려는 집요한 노력이 있는 반면에 그에 못지않게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태서 문장을 갖추어 주려는 노력들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속기록의 작성은 어떤 작품을 쓰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도 않은 말을 보태서 보다 멋진 발언이나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것 또한 속기록의 변조요, 왜곡이다.

- ① 이것은 **업무의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총장 자격이 없지.
- ②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 기간 안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문 ①에서 “업무의 직무와”에서 ‘업무의’ 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다. 이런 표현어는 왜 집어넣었을까. 단순한 실수라고 봐야 하는 걸까?

②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가 아니었다. ‘논의해서’란 말 또한 하지도 않았다. 변문을 하면서 보태 넣은 것이다.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은즉,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였다는 대답이었다. 과잉 친절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 또한 속기록의 변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간혹 발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엉뚱하게 몇 마디씩 더 보태어 주는 이들이 또 있다. 그런데 그 결과 역시 왕왕 엄청난 오류를 초래할 때가 있다.

- ③ 철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철원에 있는 황해도 연백평야 일대의 평양 근처 평





안남도까지는 거의 커버하는 같은 지구대가 되겠습니다.

철원에 있는 황해도 연백평야? 연백평야 일대의 평양? 이토록 얼토당토않은 속기록을 작성해 낼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일까. 그리고 '지구대'란 또 무슨 뜻일까? 무조건 덜 쓰려는 노력이 어떠한 오류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문이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 철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철원이면 황해도 연백평야 일대, 평양 근처 평안남도까지는 거의 커버하는 같은 지구대(地溝帶)가 되겠습니다.

말한 그대로 문자화해 놓고 구두점만 몇 개 챙겨 주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발언 아닌가. 그런데 내용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수문을 한답시고 손을 댄 것이다. 수문은 발언 내용을 이해하고 문법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을 파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수문 작업은 생각을 말아야 한다.

④ 왜 내가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과거 한승주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인 *크라쉬 어브 시빌라이제이션*이 워런 어페어즈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여기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승주 장관이 전 외무공무원들한테 읽혔다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평을 했다구요.

실무 속기사 시절, 국정감사 팀장으로서 속기록을 취합하던 중 이 문장을 대하는 순간 참으로 황당했다. '제가 쓴 논문' 이라고? 《The Clash of Civilizations》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었던가? 그리고 그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관형어를 붙여 놓았는지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눈만 껌벅거릴 뿐이었다. ‘크래쉬 어브 시빌라이제이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발음만 받아 적으면서 막연히 발언자의 논문 제목쯤으로 짐작하고 그런 관형어를 붙인 것 같았다.

⇒ 왜 내가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과거 한승주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The Clash of Civilizations》이 『포린 어페어즈』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여기서 말했어요. -(후략)-

### 3. 지식수준의 한계가 오류를 초래한다

속기록은 이 시대의 사초다. 사초로서 속기록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다. 그 정확성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속기사의 청취 능력이다. 따라서 속기사는 자신의 청취가 정확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발언상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발언했고, 자신의 청취가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기록하라. 그 발언상의 오류는 발언자의 책임이지 속기사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기록을 작성하다 보면 지식수준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 아주 생소한 어휘나 전문적인 내용을 만날 경우 특히 그렇다. 사실 누구든 모든 발언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속기사들은 스스로가 평생학습의 생활화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갈수록 업무 자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신문이나 월간지를 거의 빼 놓지 않고 읽는다 해도 청취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회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모든 발언을 못 알아듣는 말이 없을 정도로 만물박사가 될 수는 없다.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속기록은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속기록의 작성 업무에는 그만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고통은 우리 속기인들이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다. 발언 내용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확지도 못한 발음까지 새겨들으려면 머리에는 쥐가 날 지경이 된다. 게다가 고속 발언일 경우에는 온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다. 그때 그때 관련 자료를 챙겨 읽어야 하고, 발음이 불분명하면 녹음을 몇 번씩 다시 듣기도 해야 한다. 그래도 청취에 자신이 없을 때는 발언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때도 있다. 속기록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울여야 할 노력이다. 그렇기에 속기록의 정확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속기록 작성 업무에 임하는 속기사의 자세다. 속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드는 책임 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속기사들 중에는 그러한 고통을 아주 가볍게 피해 가는 이들이 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핵의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 문제는, 제자신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평화적 원자력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을 허가하지는 것입니다.”

이 역시 실무 속기사 시절 국정감사 원고를 검토하다가 발견한 예문이다. 뒷부분이 녹음과는 영 판판이었다. “사용을 허가하지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차한에 부재하지는 것입니다.”였다. 원고를 고쳐서 당사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뜻밖이었다.

“선배님은 이런 말을 어떻게 아셨어요?”

어이없기도 하고 화도 났다. 자신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국어사전 찾아볼 줄도 몰라?”

‘차한(此限)’은 엄연히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그리고 그 용례로서

는 모든 사전이 한결같이 ‘차한에 부재하다’를 예시하고 있다. 국어사전만 찾아 보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자신이 짐작하는 적당한 말로 바꿔치기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차라리 들리는 대로라도 기록해 놓으면 편집 과정에서 바로잡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엉뚱한 말로 바꿔 놓으면 제아무리 유능한 편집원이라도 이를 잡아 낼 방법이 없다. 이것은 자구 정정도 아니고 완전 변조요, 왜곡이다.

그런데 막상 편집 업무를 맡아 보면서 새삼 놀란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는 이들이 단지 그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방법도 가지가지다. 모르는 말을 바꿔치기하는 것은 초보에 해당한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아예 빼 버리는 이들도 있고, 문장 자체를 바꾸어 놓는 이들도 있다.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속기록을 완전히 변조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본다.

### (1) 단어 바꿔치기

- ① 혹시 이들이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지출한 재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② 과학기술원이라든가 한국화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 **시제품을 주어서** 검사를 하도록 해서 그 내용을 규명하는 이런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 ③ 희랍의 가장 큰 **무슨 비행사는** 비행기가 30대에 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예문 ①의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것인지’는 ‘부동산 수회를 했다는 것인지’이고, ②의 ‘시제품을 주어서’는 ‘시편을 주어서’다.



‘수회(收賄)’란 단어는 모든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시편(試片)’은 《표준국어대사전》에만 등재되어 있다. 모르는 말은 우선 국어사전부터 찾아볼 일이다. ‘수회’란 단어는 공직자들의 비리와 관련된 뉴스에 가끔 등장할 때가 있다. ‘시편’은 “시험 분석에 쓰기 위하여 골라 낸 광석이나 광물의 조각”을 말한다. ‘시제품’과는 거리가 먼 단어다. 예문 ③은 ‘가장 큰 항공사인 올림픽 에어 웨이스’이라고 했다. 그것을 ‘가장 큰 무슨 비행사’로 얼버무려 놓았다. 발음이 좀 불분명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새겨들 수 있는 발음이었다. 설사 발음이 불분명하다 해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항공사 이름 아닌가.

- ④ 일반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우선 성장은 되어도 직업이 따르지 않는, **Growth Without Job**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요즘 추세로 오니까 취업이 안 돼서 실업률이 느는 것이 큰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고,

발언 중에 외국어가, 그중에서도 영어가 끼어들 때가 많다. 그런데 이를 본토 발음(?)에 가깝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러면 또 바꿔치기를 한다. 영단어가 잘 들리지는 않고, 정확한 발음을 새기기 어려우니까 자기도 영어 좀 배웠겠다 실력 발휘를 한 것이다. ‘Growth Without Job’이라고. 그러나 실제 발언은 ‘Jobless Growth’였다.

## (2) 모르는 단어 빼 버리기

- ① 더구나 성장 단계에 있는 1·2년생 마구 잡고 채용함으로써 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장래가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 ② 산뜻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집배용품**을 최우선적으로 연차적 전면

교체를 해서 집배 환경을 더욱 산뜻하게 가꾸어 나갈 생각입니다.

- ③ 보통 이 어선들이 어디서 조업하다가 흑산도 또는 제주도로 오느냐 하면 이 부근과 소코트라 부근에서 조업하다가 바람만 불면 이쪽으로 집결이 됩니다.

예문 ① ‘1·2년생 마구 잡고’에서 ‘잡고’는 타동사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다. 처음 듣는 용어가 자신은 없고, 그냥 빼 버린 것이다. 원래 발언은 ‘1·2년생 치패를 마구 잡고’였다. ‘치패(稚貝)’역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다.

예문 ②에서 ‘집배용품’ 앞에는 ‘순로 구분 선반 등’이라는 수식어가 있었다. 아마 ‘술로 구분 선반’으로 청취하고 ‘술로’를 ‘순로(順路)로 유추해 내지는 못한 것 같다. 뜻은 모르겠고, 그냥 빼 버렸다. 우편물 배달하는 노선별로 우편물을 구분해 놓는 선반이 ‘순로 구분 선반’이다.

예문 ③은 지도를 걸어 놓고 현황 설명 하는 것을 기록한 것 같다. ‘이 부근과 소코트라 부근에서’-이 또한 적당히 얼버무려 놓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일향초 부근과 소코트라 부근에서’였다. ‘일향초’는 흑산도 근해에 있는 암초요, ‘스코트라’는 흔히 ‘이어도’라고 불리는 암초를 말한다. ‘일향초’는 ‘일양초’ 혹은 ‘이량초’로도 들렸을 것이다. 정확한 발음에 자신은 없고 고민이 되니 아예 빼 버린 것이다. ‘스코트라’는 들리는 대로 ‘소코트라’로 기록했다. 인터넷에서 찾아 보니 ‘소코트라’는 인도양상에 위치한, 예멘이란 나라의 가장 큰 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배가 바람이 불면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서 제주도에까지 온다는 얘기가 되어 버렸다.

### (3) 보태고 빼고 고쳐 쓰기

- ① GNP가 증가하면 빚 문제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부 지출의



- 투자승수가 1도 안 되고 0.8%밖에 안 되었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즉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편성되었어야 합니다.
- ② 전국에 14개 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 상장 수수료 요율이 전부 틀려요. 전북 수산시장은 6%, 노량진 수산시장은 4.3%, 가락동 시장은 3%…… 시장에 따라서 3%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이 4차 회담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남북한, 미국, 중국이 먼저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면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2+2 방식에 대해서 검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편집을 보다가 예문 ①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사자에게 전화를 했다.

“0.8%밖에 라고 기록했는데 혹시 ‘0.8밖에’ 라고 발언하지 않았어요?”

“어머,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퍼센트(%)를 넣어 주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투자승수의 개념도 모르면서 어림짐작으로 속기록에 손을 댄 것이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발언자를 무식하다고 할 것이다.

예문 ②는 그 반대의 경우다. ‘3%까지’가 아니라 ‘3%포인트까지’다. ‘포인트’를 빼 버린 것이다. 속기록에는 %와 %포인트의 개념 차이를 구분 못 하면서 무조건 ‘포인트’란 말을 기록하지 않은 문장 또한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시사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문 ③을 읽으면서 역시 상당히 무식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무식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무식하게 빼 버린 것이다.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의 방식을 4차 회담에서 6차 회담으로 점진적 변경을 검토하라는 얘기다. 4차 회담의 당사

자는 (남·북한)+(미·중)으로 '2+2 방식' 이요, 거기에 일본과 러시아가 끼어들면 6자 회담이 되어 '2+2+2 방식' 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손을 대다 보니 자신이 모르는 전문용어도 나오면 전혀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놓는 수도 있다.

④ 기계가 28개조인데 시제품이 제작 중에 있어서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완제품도 아닌 시제품을 제작 중이라면서 무슨 납품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다. 전문가라도 손을 댄 흔적을 눈치 채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시 확인하여 살려 낸 원래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조파기가 28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조파기(Wave maker)'란 용어가 생소했던 모양이다. 무슨 말인지 청취에 자신은 없고, 그래서 과감하게 용어를 '기계'로 바꾸었다.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은 '시제품'이란 용어는 왜 동원했을까. 그리고 2개의 단문을 '시제품이 제작 중에 있어서'란 부사절을 가진 하나의 복문으로 만듦으로써 원래의 발언을 꼭 줄여 버렸다. 발언자의 어법에까지 손을 댄으로써 문체조차 바꾸어 놓은 것이다.

⑤ 예를 들어 라듐 226g을 1초 동안에 쏘이는 것을 1큐리라고 하면 인체에서 받는 피해의 단위를 렘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한전(韓電)에서는 0.1 0.2렘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피폭 환자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고 피





폭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 내용의 답변이다. 전문적인 내용일수록 말한 대로의 기록은 더욱 중요해진다. 속기사의 판단이 잘못 가해지면 자칫 발언 내용이 엉뚱하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 내용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말한 그대로 재생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예를 들어 **라뎀 226 1g**을 1초 동안에 쏘이는 것을 1쿼리라고 하고 그것이 인체에서 받는 피해의 단위를 렘이라고 그랬을 때 **연간 5렘 정도면 일단은 피폭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는 **0.1~0.2렘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피폭 환자에 대한 위험은 없다고 하지만 언제고 피폭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의 차이 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비교해 보자.

'라뎀226 1g' 을 '라뎀 226g' 으로 기록했다.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은 물론이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할 것이다. '연간 5렘 정도면 일단은 피폭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를' 기록하지 않았다. 필요 없는 군더더기 문장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번문상의 실수일까. '0.1 0.2렘 정도밖에' 는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0.1~0.2렘 정도밖에' 로 기록했다더라면 더 좋을 것이다. 한마디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손을 댄 것이다.

⑥ 현재 전시 중인 유물 7500여 점 외에 1만 2000여 점을 새로 전시해야 되는데 실제로 박물관의 보존 최대 처리 능력은 연간 200여 점이라고 합니다.

⇒ 현재 전시 중인 유물 7500여 점을 제외한 1만 2000여 점의 유물을 수장고에

서 꺼내서 새로 전시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박물관의 보존 최대 처리 능력은 연간 200여 점이라고 합니다.

‘수장고(收藏庫)’라는 생소한 용어를 빼면서 앞뒤 문장도 같이 손질을 했다. 동시에 발언의 내용도 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이런 식의 보태거나 빼거나 문장을 아예 고쳐 쓰는 방법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간혹 발언자가 실수를 하거나 유식하지 못한 발언이라도 하면 내용은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지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상태에서 또다시 수문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게 된다.

⑦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사전에 보면, **높은 자는 어른이고 낮은 자는 열간** 이 이럴 때는 열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열이고 좀 높은 자라고……”

“긴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 방법에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 일입니다마는 국어교육에서 장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어른이고 낮은 자는 열간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리 보아도 무슨 오류가 있음이 분명했다. 질의 부분을 다시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 사전》에 보면, ‘**열:**’은 높은 자고 낮은 자는 ‘**열간이**’, 이럴 때는 ‘**열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열**’이고 좀 높은 자라고……



무언가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얼른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답변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대조해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는 있다. 긴소리, 장단, 이 두 단어에 비추어 볼 때 질의자는 장·단음을 고·저음과 헷갈린 상태에서 ‘높은 자’ ‘낮은 자’ 라는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헷갈리는 질의를 들던 답변자는 이를 시정해 준다. “긴소리라는 뜻입니다.”라고.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언일구 발음에만 집착하다 보니 “‘얼’은 높은 자고”를 “어른 높은 자고”로 청취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수문이라는 걸 했다. “높은 자는 어른이고”라고. 바담뽕 발언에 빠담뽕 수문이다. 유식하지 못한 발언을 음성만 기록해 놓으면 독자가 헷갈리게 된다. 거기에 속기사의 이해 부족으로 수문이 잘못 가해지면 위 예문처럼 더욱 뜻 모를 황설수설이 되는 것이다.

이 발언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쳐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될 것이다.

⇒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 큰 사전 에 보면, ‘얼.’ 은 장음이고 ‘얼간이’ 의 ‘얼’ 은 단음입니다. 이렇게 ‘얼간이’ 에는 ‘얼’ 에 아무 표시가 없지만 ‘얼.’ 에는 ‘우리나라의 얼’ 이라고 할 때처럼 길게 발음하라고 장음 표시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 무식한 발언을 유식한 발언으로 바꾸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말한 그대로를 살려 놓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야 독자들은, 발언자가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 질의를 듣고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상황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 4. 무책임이 오류를 초래한다

-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절 누설하지 아니한다.

이상은 속기사의 신조 3개 항 전문이다. 이 신조를 제대로 지키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첫째는 청취 능력이고, 다음은 수문 능력이다.

‘들은 대로’ 기록한다는 신조는 바로 ‘말한 그대로’ 새겨들을 수 있는 청취 능력을 구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청취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들은 대로’가 아니라 ‘들리는 대로’ 기록하기 쉽다. 청취 능력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수문 작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한다. 들리는 대로 기록하고 수문을 가함으로써 ‘바람뿜’을 ‘바담뿑’으로 청취하고, 이를 다시 ‘빠담뿑’으로 변조, 왜곡시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취상의 오류 위에 번문상의 오류가 더해지는 것이다.

##### 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관허, 관서비가 줄어줘야 할 텐데**

관허, 관서비? 예산에 그런 항목도 있던가? 진한 글씨 부분을 처음 청취하여 기록한 것은 아마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 ~ **관허, 관서비** 줄어줘야 할 텐데

들리는 대로 기록해 놓고 보니 무언가 문장으로서의 부자연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이 오청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발언자가 우리말을 부정확하게 구사한 것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이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수문이라는 걸 했다. ‘관허, 관서비’ 다음에 주격조사 ‘가’를 첨가했다.

⇒ ~ 관허, 관서비+가 줄어져야 할 텐데

그러나 발언자의 실제 발언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 어휘도 내용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 ~ 관의 간섭이 줄어져야 할 텐데

청취 능력과 수문 능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속기록의 정확성에 대한 투철한 책임감이다. 생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참고 자료를 뒤지거나 그 분야에 관련된 글을 찾아 읽어서라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려 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이 귀찮고 고통스럽다 하여 임의로 보태고 빼고 문장을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원고에 책임을 지는 자세일 수 없다. 그것은 곧 전문직 속기사이기를 포기한 것이요,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사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② 근본적으로 정치에는 어떤 철학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철학이나 사상적 기반이 없이 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구호나 낱말로써 될 것 같으면 중동의 오일 달러 가진 나라들이 구호 내걸면 다 될 것 같지만 거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 기반이나 사상적 기반이 없이는 안 된다. 빠른 시일 안에 진짜 구호가 아니고 낱말이 아닌 1등 경기를 건설해 낼 수 있는 틀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 부호의 사용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흠 잡을 만한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녹음과 대조하여 다시 살려 낸 문장과 비교해 보면 그게 아니다.

⇒ 근본적으로 정치에는 어떤 철학이 없이는 안 됩니다. **공자 말씀 가운데 徒善이不足以爲政이라, 한낱 착한 것 가지고는 정치를 못한다 이거야.** 근본적인 철학이나 사상적 기반이 없이 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구호나 낱말로 써 될 것 같으면 중동의 오일 달러 가진 나라들이 구호 내걸면 다 될 것 같지만 거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어떤 **정말 선공후사하겠다는 철학적 기반이나 사상적 기반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진짜, 구호가 아니고 낱말이 아닌, 1등 경기를 건설해 낼 수 있는 틀을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되어 웬만한 전문용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고문서나 경전을 인용할 때만은 아직도 난감할 때가 많다. 몇 개 한자어를 한글로만 입력하여서는 쉽게 찾아지지도 않거니와 때로는 발언자가 정확하게 인용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발언자는 위 인용문을 ‘도선이부족이정’ 이라고 했다. 아무리 인터넷 검색창을 두들겨도 비슷한 공자님 말씀은 찾을 수가 없었다. 중국어 전공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예문은 쉽게 확인이 되지 않고 하니 번문하면서 귀찮은 말을 흔적도 없이 지워 버린 것이다.

③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보증인수를 강요해 가지고 300억짜리를 3건을 해 가지고 800억의 부도가 났습니다. 재무부가 금융 감독을 **해야지** 이런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옳은 일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재무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좀 오래된 속기록에서 발견한 예문이다. 진한 글씨 부분은 오역에다 알아듣기 힘든 부분을 완전히 얼버무려 놓은 것이다. 게다가 한글 맞춤법조차 틀렸다. 다시 살려 낸 원문과 비교해 보라.

⇒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보증인수를 강요해 가지고 300억짜리를 3건을 해 가지고 800억의 부도가 났습니다. 재무부가 금융 감독을 해야 할 처지에 이런 압력을 가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를 제기하고, 또 이 사장이 조금 있다가 김 사장, 김 사장이 또 조금 있다 가고 이런, 실물경제에 따라서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으로 나가는데, 나는 두 팀 세 팀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발언자는 평소에도 발언이 좀 지저분한 편이었다. 얼른 알아듣기도 힘든 발음에다 말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발언이었다. 거기다 심심찮게 외국어까지 섞어서 발언을 했다. 위 발언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속기사는 속기를 하면서 그리고 번문을 하면서도 ‘두 팀 세 팀’의 ‘팀’을 ‘tem’으로는 생각을 못한 듯하다. 아니, 그런 단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다. 평소 엉망인 발음에 하도 데었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발음쯤으로 여겼던 것일까. 일일이 확인하려니 또 귀찮고, 아예 빼 버린 것이다. 속기사의 신조는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악습이 꼭 못 알아들어서만 그런 것도 아니다. 때로는 못 알아들을 말이 없는데도 뚱뚱뚱뚱 빼 버리는 이들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

질의 답변 중에 이런 부사구나 부사절이 등장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부사어 다음에 오는 말은 아예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 말한 것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었다. 다음 예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진한 글씨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속기록에는 완전히 빠져 있다.

- ④ 양도세 소득에 대한 심사청구 건수가 많은 주된 이유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의 차이에 따라 세금이 많이 납부되었다고 느끼는 납세자의 이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사를 해야 될 경우 원칙으로는 기준시가에 의거해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부실부과를 방지하고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하여 잘못된 과세를 사전에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건수가 축소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번문을 하다 실수로 빠뜨린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조금 내려가다가 같은 방식으로 한 문장을 뭉텅이로 뺀 기록이 또 나왔다. 역시 진한 글씨체가 다시 살려 낸 부분이다.

- ⑤ 국세청은 과학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한 생산수율 신고서를 받아 이를 분석 검토하여 동종 업체에 비해 현저히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동 업종 평균수율 등을 산출하여 각종 서면 분석 세무 조사 및 성실신고 지도를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수율 분석기법을 더욱 개발하여 체계적인 세무관리가 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생신수술에 대한 들어가는 노력보다는 그 활용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중복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일까. 물론 의미 없는 중복 발언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예문 ④나 ⑤ 모두 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필자의 지식수준으로 중복 발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의미 없는 중복 발언은 결코 아니다.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다. 무조건 안 쓰고 덜 쓰는 것은 수문이 아니다. 그저 무책임한 업무 자세일 뿐이다.

필자가 속기계에 처음 몸을 담았을 때부터 실무를 떠날 때까지 이런 악습을 애용하는 이들이 꽤 있었다. 자연히 번문 속도는 엄청 빨랐다. 그것을 마치 자신이 유능해서인 양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러한 악습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본다. 역사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업무 자세인 것이다.

말로는 사람의 생각을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는 사람의 말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더구나 속기록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 아닌 타인의 말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속기사는 일차적으로 청취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청취 능력은 풍부한 어휘력을 기반으로 한다. 타인이 쏟아내는 음성언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문자언어로 완벽하게 되살려 낸다는 것은 사실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 속기인들은 그 완벽성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속기록의 정확성에 일생을 걸고 씨름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그 완벽성은 일차적으로 발언자가 사용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듣고 기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속기인들은 평소에 자신을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자신의 청취 능력을 계발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청취 능력은 장단이나 휴지 여부에 따라, 음색에 따라, 뉘앙스에 따라 달라지는 음성언어의 의미를 구분해 내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그러한 능력은 오랜 실무 경험의 축적 속에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특성과 그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에라야 비로소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속기인들은 정확하고 체계적인 우리말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수문 능력의 출발점이다. 그래야 음성언어에 그 지식을 적용, 해석하여 문자언어로 그 의미를 살려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단어가 부적합하다 하여, 표현이 부적합하다 하여 자구 정정을 하는 것은 속기록의 변조요, 왜곡이다. 지식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을 자기 수준에 맞게 고치고 보태고 빼고 바꾸어 주는 것 또한 속기록의 변조요, 왜곡이다. 못 알아들을 소리라 하여, 중복 발언이라 하여 무조건 멍텅멍텅 빼 버리는 것은 속기록의 삭제다. 이 모든 것은 속기사의 월권이요, 역사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다. 국회 속기록은 이 시대의 사초요, 사초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다. 역사는 엄중한 것이다.

(keeper@assembly.go.kr)





## 2006년 속기협회 학술세미나를 돌아보며

# “웃어 주세요!”

오근순

속기협회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세미나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세미나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숨이 막혀 옵니다. 숨이 막히게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잘 준비하고도 쏟아지던 비 때문에 세미나 행사에 차질을 빚었던 2005년 세미나의 장소적 결함도 보완해야 하겠고, 알찬 강의는 필수이고 회원들의 일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강의도 하나 끼워 넣었으면 하는 욕심도 나고, 순간의 여흥이 아니라 한참을 지나고도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때 정말 끝내 줬어!’ 라고 생각할 만한 여운 있는 여흥의 시간도 만들어야지 하며 웃음 가득한 회원들의 얼굴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의욕과 욕심이라는 녀석이 사업부장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순간에는 약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담이 돼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오직 책임



감만이 두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네요.

그런데 도와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는 사업부원들 덕분에 비에도 굴하지 않고 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도 정해지고 이렇저렇 나를 기획했던 대로 감사진과 프로그램들이 꾸려졌습니다.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의 저자인 박홍갑 선생님의 ‘옛 기록문화를 통해서 본 선조들의 지혜’를 제1 주제로 정하고, 웃음치료 전문가라는 생소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오준오 선생님의 ‘웃음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제2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두 강의를 통해 제1 목표인 ‘알차면서 웃음을 주는 세미나’를 만들기로 했지요.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섭외가 되고 회원들의 등록도 착착 이루어졌습니다. 홍보부에서 노력한 속기계도 준비가 되었고요. 고민은 고민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속기학술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바로 회원님들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으로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작년의 기억을 속속들이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회원님들 기억에는 2006년 세미나가 어떤 형상으로 남아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작년 세미나의 추억을 말하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웃음, '웃음' 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웃음이 많았던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회원님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지?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에 실려 있는 작년 세미나가 스케치된 사진들에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사진은 '웃음'이 있는 사진입니다. '괘 게임' 기억나시나요? 옆 사진처럼 했던 것인데.

사실 게임이 재미있어서라기보다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이는 선배님들의 풍부한 천진함을 만날 수 있어서, 그 웃음으로 인해 마음까지도 자연스러워지고 풍부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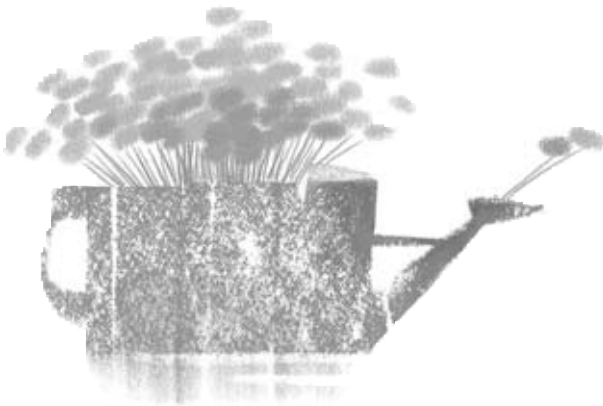
그리고 첫날밤(?) 선배 · 후배님들이 격려와 위로와 신뢰(?)로 그득찬 그 많은 술잔들…… 모르실 줄 알았는데 세미나 준비하면서 책임감에 무서워했던 마음, 처음 도전하는 저희 어린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던 선배 · 후배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 쓰린 속 부여잡더라도 웃을 수 있습니다.



대한속기협회에 ‘기대에 부응 못하는 것 아니냐’는 뜨거운 질타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세미나가 이렇게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저처럼 능력이 없어도 하고자 하는 무대뽀 정신으로 속기사 사랑을 실천하셨을 선배님들과 그런 마음 잘 알고 다독겨려 주셔서 또 다음을 시도하게 하는 많은 위로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2007년 대한속기협회 세미나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8일~9일 수안보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작년의 웃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웃어 주세요. 이번 2007년 세미나에서도요.



# 2006 INTERSTENO

## 중앙위원회 참가 보고

국 제 부



중앙위원회 회의 장면

1. 기 간 : 2006. 9. 22.(금) ~ 9. 25.(월)
2. 장 소 : 터키 안탈라의 Hotel Grida City
3. 한국 측 대표
  - 채강희 (협회 고문 / 단장)
  - 최예숙 (협회 이사)
  - 고석광 (협회 이사)
  - 김점동 (협회 이사)



- 고 경 효 (협회 이사)
- 정 재 응 (협회 회원)

#### 4. 참가국 및 참가 인원

- 16개국 35명  
(한국,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터키)

#### 5. 참가 목적

- 속기 환경의 세계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 모색
- 세계 속기인들과의 친목 도모로 한국 속기의 국제적 위상 증대 노력

#### 6. 중앙위원회 일정

##### ▽ 9월 22일(금)

- 14:00~16:30 Board meeting
- 17:00~20:00 Session 1
  - 2005 비엔나총회 회의록 추인
  - 2005 비엔나 인터스테노 총회 보고
  - 2005~2006 이사회 활동 보고
  - 인터넷경기대회에 대한 불만사항 토론
- 20:30~ Welcome dinner





중앙위원회 의장 Danny(왼쪽에서 세 번째)와 한국 측 대표들

▼ 9월 23일(토)

• 08:30~11:00 Session 2

– 인터넷경기대회 안건 토의

• 13:30~16:30 Session 3

– 인터넷경기대회 규칙 제정

(자동번역프로그램으로 모든 언어 또는 모든 컴퓨터속기 기계로 인터넷경기대회에 응시할 수 있도록 준비함. 한국 대표가 2006~2007 인터넷경기대회에 꼭 참여해 주기를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희망함)

▼ 9월 24일(일)

• 09:00~12:00 Session 4

– 2007 프라하 인터스테노 총회 프리젠테이션



2007 프라하 인터스테노 총회 프리젠테이션

(2007년 인터스테노 총회는 2007. 7. 19 ~ 7. 26 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체코 프라하에서 열기로 함)

- 인도의 새로운 속기타자기 소개
- 13:30~18:00 시티투어(Thermessos)

#### ▽ 9월 25일(월)

- 09:00~12:00 Session 5
  - 2009 인터스테노 총회 개최지 협의
  - (2009 인터스테노 총회는 중국 베이징으로 잠정 합의함)
  - 기타 사항 토의
- 13:30~19:00 시티투어(Duden & Kursunlu falls)
- 20:00~ Good-bye dinner

## 7. 성과 및 반성

- 세계 각국 의회의 속기업무에 대한 최신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세계 속기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한국 의회 속기계의 현황 등을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자료 교환 등을 약속함.
- 그동안에는 다른 참가국들의 연구 발표를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향후 우리나라도 연구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까지 참관만 하고 있는 인터넷경기대회에 2007년부터는 직접 참가할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최근 중국 속기계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세계 속기 관련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여 중국 속기계의 영향력을 점차 증대 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리 대한속기협회에서도 속기 관련 국제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은 물론, 중국·일본 등 인접 국가들과의 다각적인 교류 증진으로 한국 속기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세계 속기계에 우리나라 속기의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주로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인터스테노 총회와 중앙위원회 회의에 꾸준히 참가하여 우리나라 속기계의 위상을 높이고는 있으나, 참여 속기사의 어학 실력 부족 등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속기협회 국제부를 중심으로 인터스테노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아직까지 ‘참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터스테노 내 한국 속기계의 위상을 ‘참여’ 수준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2007 INTERSTENO 총회

## 참가신청 안내

국 제 부

세계 속기인들의 모임인 “2007 INTERSTENO 제46차 총회”가 체코 프라하에서 2007년 7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속기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한국 속기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뜻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일 정 : 2007년 7월 19일~27일
- 장 소 : 체코 프라하
- 접 수 : 협회 국제부 ☎ 02-788-2373 주정순)

#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을 받고

정 순 화

지난 1년간 승진과 관련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3월 2일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승진후보자 발표가 나고 바로 3월 5일 (월요일) 9시부터 헌정기념관 강의실로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더 이상 승진과 관련한 마음고생은 없어도 된다는 안도와 승진을 하게 되었다는 기쁨과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고 교육에 임하게 되었다.

교육이라면 평가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또 매일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마음 설레게 하기도 한다.

3월 5일에 입학식을 주로 했던 기억이 떠올라 신입생 같은 기분으로 입교식을 마치고 사무차장님의 ‘입법부 공무원의 역할과 자세’ 교육을 시작으로 5주간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국회 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딘 지 25년 만에 사무관 승진예정자가 되어 받는 교육은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관리자로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 등등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라도 더 배워 앞으로 업무를 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강의를 하는 교수 중에는 국회에 오래 근무하신 분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었는데 특히 내부강사분들은 모두 딱 집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나름의 직장생활이나 삶의 노하우가 엿보였고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의 안일함을 반성하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회 공무원으로 근무했는데 업무와 관련해서 남들 앞에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루하루 그저 내게 주어진 업무만 열심히 했지 전반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에서 주위도 돌아보고 공부도 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기도 했다.

특히 주영진 수석전문위원의 국회법 강의는 국회 공무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어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고 정말 국회 공무원이라면 국회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회법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게 했다.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 외의 교육프로그램에는 봉사활동과 해병대 훈련, 한국생산성본부에서의 교육과정도 있었는데 강의실에서 하는 교육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봉사활동은 인천에 있는 예향원이라는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목욕봉사, 청소, 발갈이 등등 각자 맡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는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 조금 멀게는 내가 늙었을 때의 일들로 와 닿았다. 점점 평균수명은 길어져서 노인들은 늘어나고 부양해야 할 자식들은 의식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부양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국가에서 무료로 노인들을 부양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요양원을 많이 지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맛벌이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집에서 혼자 갇혀 있다시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설에서 잘 보살펴 드리고 다른 사람과 얘기도 하면서 사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꼭 집에 모시고 있어야만 효가 아닐 것이란 생각과 함께.

해병대 캠프에서는 제식훈련, PT체조, 지옥훈련 등등..... 그날 따라 날씨가 추워서 모두들 개구리복 안에 옷을 껴입어서 뚱뚱보가 된 모습으로 제식훈련도 하고 PT체제도 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교육을 끝낼 수 있을가 걱정이 되기도 하였는데 교육생들이 나이가 많다고 엄살을 너무 부려서 그런지 그런대로 할 만하게 훈련을 시킨 것 같다.

해상훈련에서 보트를 저어 바다로 나갈 때는 바다에 빠져서 발이 시리기도 하고 추워서 떨기도 했지만 한 팀이 협력해서 노를

졌고 과제를 수행하고 나니 훈련 강도가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도 있었다.

저녁을 먹고는 지옥훈련이 있었는데 보트를 머리에 이고 약 40분간 행군하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팀원들이 갈수록 힘이 부치니까 구렁에 맞춰 악을 쓰고 하다 보니 처음에 어떻게 할까 했던 걱정과 추위는 어디로 달아나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훈련을 다시 받을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훈련과정을 끝내고 나니 훈련 시작 전과는 달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색다른 체험을 해 본 것이 삶의 한 귀퉁이를 풍요롭게 할 것 같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변화주도 리더십과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의 강의로 조직 속에서의 나의 리더십 유형과 자아 상태를 진단해 보았는데 특히 에고그램 프로파일 테스트 결과는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내면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삶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에 5주간의 교육이라고 할 때는 길게만 느껴졌는데 다양한 교육을 받고 보니 끝날 무렵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교육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할 생각을 하니 긴 직장생활에서 승진이라는 한 고비를 넘을 수 있기까지 물



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후배님들과 수많은 고마운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분들께 일일이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마가 그리워지는 계절

김 덕 진

어김없이 신록이 푸르른 계절이 왔다. 4월 임시국회를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보내고 점심식사 후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문득 올려다본 허공엔 큰 키를 자랑하는 나무들이 줄지어 위용을 뽐내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고, 뿌리를 벗 삼아 힘차게 뺏은 잎들은 어느새 눈이 부실 정도로 초록의 싱싱함을 보여 주고 있다. 새삼 자연의 위대한 순환과 섭리가 느껴지면서 아직도 연초에 머물고 있는 나의 계절감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 I

3월부터 5주일간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4월 둘째 주에 임용되어 자리에 앉은 이후 가장 많이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새로 승진·보임된 계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하러 온 전화일 리는 만무하고 급



하게 회의록을 찾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그 요구에 최선을 다해 부응하지만 항상 시간은 빠듯하다. 보좌진들에겐 최상의 만족보다는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고 타협으로 양보를 이끌어 내어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그나마 급한 불은 끄는 셈이다.

누구나 정보에 대한 욕구가 있다. 아프리카나 태평양의 외딴 섬 원시 부족사회를 연구한 인류학자들은 “이들도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뉴스를 갈구하고 있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재빨리 달려가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풀어서 이야기해 줄 정보전달자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전한다.

우리 국회에서 속기사는 “이 회의장에서 저 회의장으로 재빨리 달려가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회의록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전문화된 회의기록전달자”인 셈이다. ‘전문화된 기록전달자’인 속기사는 회의록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신속하고 풍부한 회의 기록의 정보’를 전달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무를 다할 수 있으며, 다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책무를 다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우리의 본원적인 한계이다. 이 근원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전문화된 회의기록전달자 ‘속기사’의 정직한 자세이다.

우선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회의에 대처하기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정기회에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많은 회의를 함으로써 일년 중 절반 이상을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보내고 있다. 연중 한번에 몰아서 치르는 국정감사가 그 핵심적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나머지 기간에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반년의 기간을 녹초가 된 상태로 보낸 후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나머지 반년도 기진맥진하여 일에 치여 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이 정도 애로사항이 없는 직업이 어디 있겠냐고 한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기록이 의무화된 지금 우리의 얼굴에선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어깨는 천근처럼 무거우며, 허리가 아파 단체 할부로 듀오백 의자를 구입했지만 여전히 침으로 땀으로 부항으로 지지고 쭈셔대는 통에 허리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수난당하고 있고, 손목과 손가락은 건초염으로 테이핑하여 마치 경기에 출전한 배구선수 꼴의 반창고 신세임을 누가 알아주랴.

더욱 문제는 신세대 직원들의 건강관리소홀증일 것이다. 바야흐로 기록업무가 체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구전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구조로 바뀐 지 오래인데 운동은커녕 그 와중에

다이어트한답시고 김밥에 라면이나 피자 한 쪽으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그랬다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것은 개인의 손해일 뿐 아니라 전체에게 공공의 적이 되는 길이다. “미녀는 괴로워”의 김아중을 꿈꾸다가 진짜 온몸이 괴롭게 되는 건 시간문제이다.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온몸이 성한 데 없지만 고객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참으로 억울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과제이다.

## II

남의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까지 읽어 내야 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일례로 잘못된 발언을 임의로 고쳐 주느냐의 문제가 있다. 안 고쳐 주면 말이 안 되어 소위 ‘수문(修文)’을 한다는데 그렇게 하다가 발언자의 진의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회의에서 발언자가 틀리게 말한 것 같은 부분이라도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인간의 태초를 기록한 성경은 인간이 애초부터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예컨대 동산을 지으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뒤, 그에게

이렇게 일렀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surely)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묻는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라고 대답한다.

여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였다고 전한다. 아마도 하와는 뱀의 유혹에 이미 마음이 흔들린 데다가 설마 죽기야 할까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정녕’이란 말을 빼 버린 게 아닐까?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정보는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속에 포함돼 버린다. 전달하는 사람의 인식의 창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세계관, 이데올로기, 가치관에 오염이 돼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 인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그 답은 ‘검증’이다. 따라서 우리는 회의록 작성과정에서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속기사에 있어서 검증은 녹음의 확인과 들린 대로 쓰는 것이다. 잘못을 몰라서 다듬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실(fact)만을 기록하고, 자의적 해석은 자제하며, 정정은 절차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 회의에서 발언한 의원도 자구의 정정을 하려면 의장에게 요구해야 하는데(국회법 제117조) 우리가 임의로 고친다는 것은 월권이다.

또한 신속한 회의록의 제공을 위해서도 요령부득인 말을 멋지고 그럴듯하게 꾸며 주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다. 목표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서는 시의적절하게 불완전한 결정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 늦게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므로 실수는 불가피한 것이다.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 전진하는 것이 인생에서도 바로 승자의 길이다. 큰 그림으로 보면 회의록에서 몇 개의 작은 오류는 전체의 내용 전개와 이해에 그다지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국회회의록에서 적시성이 정확성보다는 앞서는 덕목인 것이 그 까닭이다.

오늘도 사무실에는 뺏뺏한 목줄기를 제 손으로 쓰다듬으며 밤을 낮 삼아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 이들이 있어 우리 의회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될

법도 한테 당장은 뭉친 어깨가 피곤을 부른다. 국회 내 안마실 설치가 무산됐을 때 누가 제일 안타까웠는지는 다들 짐작 못할 것이다. 뿌연 달빛을 맞고 밤하늘의 고독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하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다.







## 아버지와 딸

# 우린 책벌레 닮은 꼴이에요

의정기록 1과 권 영 찬 서기관 & 권 아 영 사무관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요소는 아버지’ 라는 책이 있다. 굳이 이 책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특히 딸의 삶에 아버지가 참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들 한다.

의정기록 1과의 권영찬 서기관이 올 봄 제23회 입법고시에 합격한 딸 권아영 양과 함께 출근하게 됐다. 두 사람의 데이트 현장에 살짝 동행했다.

- 합격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영 : 아무래도 국회에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죠. 그리고 어머니도 국회에 다니셨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국회 커플이셨어요.

권 서기관 : 1978년부터 2000년까지 함께 근무했지요. 아영이를 임신했을 때도 여기서 일하고 있었지요.

- 아버지와 같은 공직을 선택했는데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요?

아영: 아버지가 책을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모으세요. 집에 책이 꽤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읽지는 않아도 아버지가 보는 책 표지라도 보고 자랐지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분야를 좋아하게 됐죠. 역사를 좋아하시는데 어느새 저도 종종 역사책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생일 등 기념일에도 늘 책을 사주셨어요. 플루타크 영웅전, 그리스 로마 신화 등 한 번에 10권 이상을 선물하곤 하셨죠.



- 시험 공부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지원해 주신 부분이 있다면?

아영: 졸업하고 2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백수 기간이 길었는데, 별 말씀 없이 금전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많이 도와주셨죠.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일마다 별로 반대하지 않으시고, 믿고 기다려주신 게 가장 고마웠어요.

권 서기관: 애 엄마가 많이 도와줬지요.

아영: 어머니는 특히 제가 흔들릴 때 항상 할 수 있다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지요.

- 이제 곧 함께 국회에 출근하게 될 텐데 소감은?



권 서기관 : 좋죠(웃음). 그런데 아침에 매일 싸울 것 같아요. 출근시간에 바쁘잖아요. 여자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는 딸에게 차를 뽑아줘서 같이 출근하라고 하는데... 저는 통근버스를 타고 와요.

아영 : 차만 사주신다면 모시고 같이 출근해야죠(웃음). 아버지와 같은 데서 근무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사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앞으로 아버지와 같이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게 되면 그 때 가장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아영 씨가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고 성격이 좋아 화를 잘 내지 않는데다 무엇보다도 건강해서 고맙다는 권 서기관의 말에 딸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 난다. 권 서기관은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가 아닐까 싶다.

(국회보 5월호 발췌)

취재 : 임은경 홍보담당관실

사진 : 최석민 홍보담당관실





# 호주 · 뉴질랜드 북섬 여행기

장미경

작년 12월이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키를 타보려고 강습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내게 이번 연말에 해외 출장 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게 웬 떡인가? 생각지도 않은 해외 출장이라니…… 가부를 묻는 질문에 난 무조건 오케이라는 답을 보냈다. 팀원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지만 무조건 오케이!

팀원은 전부 7명, 여성이 4명이고 남성이 3명이었다. 의외로 꼼꼼하고 걱정이 많은 남자 팀원들을 겨우 설득해 목적지를 호주 · 뉴질랜드 북섬으로 확정했다. 호주는 몇 년 전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지만 뉴질랜드는 못 가본 곳이라 자못 궁금하고 기대가 되었다.

열흘에 걸치는 긴 여행이라 집안 식구들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마다 항상 든든하게 나를 지지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시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었으니, 출발하기 전날부터 슬슬 올라오는 감기 기운이었다. 따뜻한 나라에 가니까 뭐 별 탈 없겠지 하면서도 감기약 챙기는



것은 잊지 않았다.

출발하는 날 오랜만에 겨울다운 매서운 날씨가 찾아왔다. 바람은 왜 그렇게 세계 부는지…… 몸 상태는 더욱 안 좋았지만 오리털 파커를 입고 공항으로 출발했다. 어휴 추워라, 추워.

일행들은 짐을 따로 부쳤지만 난 그냥 기내로 가방을 들고 들어갔다. 다행인지 내 양 옆 좌석에 아무도 없어서 일찌감치 감기약을 먹고 폭 자기로 했다. 감기약 덕분에 계속 비몽사몽 헤매면서 잠자다 일어나 보니 어느새 호주에 도착! 현지 시각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공항 화장실에서 호주 기후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곧장 브리즈번으로 갔다. 호주 여행의 시작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생츠킨코브.

호주 부호들의 휴양소로 이름난 생츠킨코브에는 멋진 요트들이 해안에 가득 있는데 요트의 하얀색은 맑은 호주 날씨와 아주 잘 어울렸다. 난 언제나 저런 요트를 타고 항해 한 번 해보나 하면서 생츠킨코브 상점에서 요트 색에 잘 어울릴 하늘색 모자를 하나 샀다.



생츠킨코브의 멋진 요트들

이어서 휴양도시인 골드코스트로 갔다.

우리들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서 잠시 어린 아이로 돌아가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다. 연이어 호주 최대의 해양공원인 씨 월드(SEA WORLD)로 갔는데 공원은 연말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로 놀러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영리한 돌고래가 환상적인 묘기를 선보이는 돌고래쇼, 발랄한 아가씨와 근육질의 호주 남성이 펼치는 수상스키쇼 등을 보기도 했고 한참을 기다려 놀이기구에 타기도 했다.



골드코스트에서

맛없는 뷔페로 점심을 적당히 때운 뒤 가이드는 우리 팀을 양모공장으로 안내했다. 아주 싸다는 가이드와 교포 상인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야속하게도 우리는 그들에게 1건의 실적도 올려 주지 못했다. 잘 생긴 가이드에게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곧장 호텔 안으로 들어왔지만 첫날부터 그냥 잘 수는 없는 일, 시내 중심가로 나가 맥주 한 잔씩 마시는 것으로 간단히 우리들의 호주 입국을 자축했다.

다음날 새벽 3시 30분에 모닝콜이 울렸다. 정확히 4시 30분에 호텔 로비에 집합한 다음 브리즈번 공항으로 출발했다. 공항 한 곳에 모여 가이드가 준 도시락으로 서둘러 아침 식사를 대강대강 한 다음 비행기를 타고 시드니로 갔다. 시드니는 썸머타임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브리즈번보다 1시간이 더 빨랐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페더데일 야생동물원으로 이동했다. 코알라, 에뮤, 캥거루 등 호주를 대표하는 희귀동물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블루마운틴으로 갔다.

블루마운틴은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호주의 대표적 국립공원으로 세 자매봉, 에코포인트 등 바위의 형상이 참으로 독특했으며 그 경치과 장관이었다. 우리는 또 탄광 레일을 개조한 퀘도열차에 탑승을 했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



가 시간 절약을 위해 반대편으로 탔던 나머지 내려갈 때 누릴 수 있는 52도 경사의 그 짜릿함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내로 다시 나가서 시드니 해양수족관을 관람한 다음 하트락 카페에서 현지식으로 저녁식사를 하니 비로소 외국으로 여행 나온 기분이 한껏 들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오늘은 바로 2006년 마지막 날, 어제 저녁 가이드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와 시내 명소를 관람할 거니까 최대한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오라는 말이 생각났다. 가져간 옷 중에서 최대한 멋을 내고 밖으로 나왔더니 가이드가 우리보다 더 화려한 관광객으로 변해 있었다. 흠, 수상한데……

호주인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오페라 하우스는 1973년 9월에 완공됐는데 건축과 공학 분야에 신기원을 이룩한 건축물로 그 모양이 참 아름다웠다. 크루즈를 타고 맛있는 씨푸드로 점심 식사를 하며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 항만을 관람한 것은 지금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후 본다이비치 해변에서 앞가슴을 풀어헤친 채 널브러져 있는 멋진 호주 여인네들을 감상(?)하며 잠깐 동안 산책을 했고 더들리 페이지와 남태평양의 절경

이 내려다 보이는 갭팍, 영국인들이 호주를 침략했을 때 수없이 죽인 원주민들의 시체에서 나온 피로 인해 해안이 장미빛으로 변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의 로즈 베이 등을 둘러보았다.

저녁 식사 후 호주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운다는 카지노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의 세 자매봉 앞에서



의 현장을 구경한 다음 우리 팀은 둘로 나뉘었다. 2006년 마지막 날을 그냥 보낼 수 있느냐며 시내에서 밤샘을 하자는 파와 뉴질랜드로 일찍 떠나야 하는 다음날의 일정이 부담스럽다며 그냥 호텔로 들어가자는 파로 나뉘었는데 나는 몸 상태가 안 좋은 터라 호텔에 일찍 들어가기로 했다.

호텔로 들어오는 차에서 누군가 오늘 교회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거참 좋은 생각이라며 교회를 찾아 나섰는데 웬걸, 호주에는 우리나라처럼 송구영신 예배가 없는 모양이었다. 몇 군데 교회에 가보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끝끝…… 호주 하나님은 일찍 주무시는 모양이군.

호텔 방에서 TV를 보니 시드니 한복판에서는 아름다운 폭죽이 연신 터지며 많은 사람들이 2006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2007년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우리 일행도 저 인파 중 어딘가에 있겠지 하며 가물가물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 HAPPY NEW YEAR!

2007년 1월 1일, 부스스한 모습으로 새벽 4시 30분에 체크 아웃을 하고 가이드가 주는 도시락을 들고 공항으로 갔다. 맛없는 도시락을 대충 먹은 다음 비행기를 타고 뉴질랜드로 갔다. 호주랑 1시간의 시차가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것은 12시. 입국 수속을 밟는데 공항 직원이 나한테 음식물 가진 게 있느냐고 물었다. 난 물론 없다고 했지. 근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이야!

내 짐을 검색하면서 이상한 게 보이는지 나를 따로 불러 세웠다. 이후 우리 일행 몇 명도 같이…… 아뿔싸! 가이드가 준 도시락에서 먹지 않고 남겨 둔 호주 사과 한 알이 문제였다.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 뭐 뉴질랜드는 작은 섬나라라서 면역 관계로 음식물 반입이 매우 까다롭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로토루아 야외 유행온천

가지고 있는 사과를 음식물로 신고하지 않았으니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200달러나! 잠이 확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만, 뉴질랜드 달러로 200달러면 얼마야? 14만 원…… 어머, 난 못 내! 그 맛도 없는 사과, 먹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14

만 원이나 내라고?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있는데 공항 밖에 있는 뉴질랜드 가이드가 들어왔다. 공항 직원과 뭐라 그러더니 어린아이들이 있으니 벌금을 50%로 깎아준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50% 벌금을 어떻게 나눠낼까 서로 의논하다가 오해가 생겨 약간의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이드의 맘을 상하게 했는지 가이드가 갑자기 화를 내며 자기는 여기서 빠지겠다고 하며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뉴질랜드 공항 직원은 우리에게 화를 내며 너희는 가이드의 말도 안 듣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뭐다 하면서 벌금을 100% 다 내라고 했다. 이렇게 황당할 수가……

할 수 없이 신용카드를 불명예스럽게 벌금을 찍 그은 다음 공항 밖으로 나왔다.

2007년 1월 1일, 정초부터 이게 웬 재수없는 일이냐는 등, 그보다 저 뉴질랜드 가이드가 꽤 씹하다는 등 우리는 투덜투덜대며 버스에 올랐다.

기분은 나빴지만 뉴질랜드 북섬의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다. 드넓게 펼쳐진 풀밭에서 100% 방목 된다는 양과 젓소들이 풀을 뜯어 먹는 모습은 참 한가로웠다.



뉴질랜드는 위치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나라로서 원주민 마오리족과 영국 전통의 기초 위에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건설한 나라라고 한다.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만큼 개방적이고 자유와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들을 유학을 많이 시킨 나머지 오클랜드 대학에는 한국어학과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뉴질랜드 관광은 와이토모 동굴 관람부터 시작되었다. 동굴 속 지하 강물을 따라 보트를 타고 가면서 ‘글루웍’ 이라는 뉴질랜드에만 서식하는 일종의 반딧불이들이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마치 은하수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로토루아, 두 번째로 큰 호수라는 뜻인데 마을 여기저기에서 온천물이 끓어 오르고 유황 냄새가 많이 났다.

다음날 아침, 모처럼 여유 있는 아침 일정인가 싶었는데 가이드는 우리를 곧장 레드우드 숲으로 데리고 갔다. 숲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나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곧장 우리를 파워 워킹 하며 강제 산책을 시켰다. 약 1시간에 걸친 산림욕 덕분에 그동안 강행군에서 쌓인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듯 기분이 매우 상쾌했다.

땀 흘린 우리가 간 곳은 폴 리네시안 야외 유황 온천장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온천을 하는 것은 색다른 맛이였다.

마오리족의 높으신 분인지 여자 한 분이 수염 문신을 한 채 그윽히 바다를 바라보고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민속촌



아오랑이 디너쇼 중 마오리족 민속공연

있었다. 바다 갈매기들이 내 주위를 날아다니고 저 멀리 수평선에는 흰 구름들이 평화로이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비록 수영복은 입었지만 남녀가 같이 따뜻한 탕 속에 들어앉아 얘기하며 온천을 하는 것은 뉴질랜드 여행에서만 볼 수 있는 맛이리라.

더 있고 싶은 맘을 억제하며 온천장에서 나온 뒤 곧돌라에 탑승, 가이드가 사랑하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로토루아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며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 우리는 와카레와레와라는 마오리 민속촌으로 갔다. 민속촌에서는 마오리 원주민의 옛 생활 모습과 문화 등을 감상할 수 있었다. 마오리족은 순박하지만 매우 용감한 민족으로 덩치가 아주 크다. 호주와는 달리 뉴질랜드에서 자신들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몇 군데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나서 아오랑이 디너 식당으로 갔다. ‘아오랑이’라는 것은 지열로 뜨거워진 돌을 이용해 음식물을 익혀 먹는 마오리족 전통 요리를 말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아오랑이 음식을 먹어보지는 못했다.

재미있었던 것은 식당에서 한 마오리 가족이 보여 준 민속공연이었다. 마오리족의 전통 춤과 함께 우리에게 불러준 아리랑, 포 카레 카레는 잊지 못할 추억이다. 특히 ‘포 카레 카레’는 우리나라에서 ‘연가’로 널리 알려진 노래인데 남녀가 헤어져 서로 잊지 못하는 슬픈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여자 마오리의 높고 고운 음색으로 아주 느리게 시작되는 노래가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포 카레 카레 아나~, 나와 이오로토루아~’



다음날 아침 또다시 레드우드 숲에 가서 산림욕을 한 다음 가이드는 우리를 한 상점으로 안내했는데 뉴질랜드의 유명한 관광상품인 녹용을 파는 곳이었다. 하나 사고 싶었지만 비싼 벌금을 낸 게 아까워서 꼭 참았다. 이후 아그로돔 농장에 가서 유명한 양털깎기 시범과 양몰이쇼를 관람했다. 양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어찌나 종류가 다양한지 수십 종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메리노 한 종류뿐이다. 내가 산 양모 이불은 과연 어느 종류의 양털이 들어 있을지 궁금했다.

8박10일에 걸친 여행을 마친 게 바로 몇 달 전인데 마치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 같기만 하다. 간간히 메모한 것을 보며 지나간 여행의 기억을 되살리니 그때의 즐거움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그리고 보니 다음번엔 이번 여행에서 못 간 뉴질랜드 남섬을 꼭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꼭 음식을 다 먹어 치우고 입국 수속을 밟아야지. 아이구, 지금도 그 벌금만 생각하면 정말 속이 쓰리다 쓰러!



시드니 항만의 오페라 하우스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김 지 숙

이번 여행은 내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난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적어도 이전의 내 모습은 아니다.....

- 영화 속 계바라의 내레이션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를 보기 전 이 영화에 대한 이런저런 악평, 비평(물론 호평도 보았다)들을 보았지만 사실 난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계바라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이미 들을 만큼 들었기에 또 다른 면의 그의 삶,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는 기대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이 영화는 열정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스물세 살 청년 계바라의 사랑과 실연, 9개월간이라는 긴 여행에서 그가 느끼는 감성, 인간적 체취와 더불어 광활한 남미대륙의 자연 등에 초점을 맞춘다. 영화 어디에도 혁명가로서의 계바라의 모



습은 없다. 그러나 게바라의 사상과 그의 강직했던 신념의 단단한 밑거름이 돼 준 것이 무엇인지는 어렵듯이나마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다.

체(‘Che’는 동지, 친구라는 뜻의 의성어로 혁명을 하면서 얻은 별명)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의학을 전공하였는데, 23세 때 그의 친구이자 선배인 알베르토 그라나도와 중고 모터사이클을 타고 무일푼의 여행을 시작한다. 아르헨티나를 떠나 칠레·페루·콜롬비아·미국을 거쳐 아르헨티나로 돌아오는 9개월 동안의 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게바라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함께 라틴아메리카는 메스티소의 한 동족임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불합리한 세상의 모순에 눈을 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위대한 혁명가로서의 게바라의 삶을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실망했을지도 모른다. 한 평론가가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 대해 신랄한 비평을 하였듯이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 영화는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한 장면에서도 체 게바라라는 인물의 내면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체 게바라가 슈바이처나 간디와 같은 인도주의자가 아니라 레닌과 마오쩌둥의 길을 택한 사람임에도 그를 소박한 휴머니스트의 틀에 가둔다고 한다.

‘이 영화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장면은 나환자촌에서의 보름간이다. 지나치게 길게 할애된 이 장면에서 내성적인 청년 게바라는 적극적인 인도주의자로 변모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나환자들과 생일파티를 함께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대목에 이르면 영화를 만든 의도가 의심스러울 만큼 감상적이 된다……’

물론 그렇다. 그는 분명 인류의 형제애를 실천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와 같은 평화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분명 비폭력·무저항주의를 실천한 간디와 같은 인도주의자도 아니었다. 심지어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그



는 말한다. “총 없는 혁명은 불가능해!”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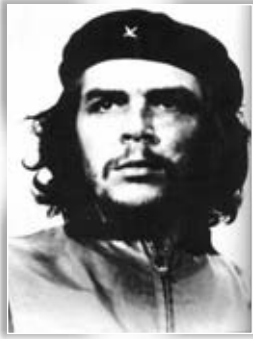
그러나 7년 뒤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혁명을 성공시킨 게바라는 이렇게 말한다. “진정한 혁명은 사랑이라는 커다란 감정으로부터 이끌어진다” 고……

그렇다. 비록 공인된 ‘인도주의자’는 아니지만, 비록 총을 든 혁명가이지만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우리 세기에서 가장 성숙한 인간’ 이라고 칭송했듯이 그의 인간적인 모습, 역사의 진실을 향한 신념 어린 실천을 온 힘을 다해 행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람마다 영화를 보고 느끼는 게 다 각각이었지만 영화가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전개됐다고 말하는 위의 장면에서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나병은 피부로 전염되는 병이 아니라며 금기를 깨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환자들과 악수하고 가깝게 어울리는 순수하고 열정 가득한 그의 모습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감동시킨다. 더 나아가 나환자촌과 의료진이 있는 마을을 갈라놓는 강을 건너는 그의 모습은 이미 평범한 에르네스토 게바라가 아닌 혁명가 체 게바라였다. 뭔가 몽클하면서도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 그의 진심이 내게도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2007년인 올해는 서른아홉이라는 나이로 죽음을 맞이한 체 게바라의 사망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의 존재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전설적인 존재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한 · 미 FTA, 북핵과 한반도 평화 · 번영, 부동산 대책과 교육 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올곧게 이끌어갈 위대한, 그와 같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체 게바라로 더욱 잘 알려진 에르네스토 게바라(ERNESTO GUEVARA ; 1928-67)는 라틴 아메리카의 게릴라 지도자이자 혁명이론가로서 1960년대의 좌익급진주의자들의 영웅이었다. 아르헨티나의 로사리오에서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1953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University of Buenos Aires)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오직 혁명만이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954년에 멕시코로 가서 그곳에 망명하고 있던 쿠바의 혁명지도자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와 합류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카스트로의 게릴라전쟁을 도와 마침내 쿠바의 독재자 바티스타(Fulgencio Batista)를 축출하는 데 성공한다.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은 후에는 쿠바의 산업부 장관(1961-1964)을 역임하였다. 게바라는 제3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카스트로 정권의 반미-친공 노선을 열렬히 옹호하였다. 게바라는 게릴라전쟁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농민이 주동이 되는 혁명운동이 후진국의 살길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1965년 쿠바에서 사라졌다가 그 이듬해 볼리비아의 반군 지도자로 나타났다가 볼리비아 정부군에게 붙잡혀 1967년 10월 9일 발레그란데(Vallegrande) 근처에서 총살되었다.





# 꽃 피는 봄이 오면

김 현 수

꽃 피는 봄이 오면 일하고 싶었던 나의 소원은 이루어졌다. 바로 1년 전에 말이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올해도 꽃은 어김없이 피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속기과는 의정기록과로 바뀌었고 나는 두 분의 서기관님을 모셨다.

첫 발령을 받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편집하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을 편집하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뜻밖에도(?) 위원회로 가게 되었다. 지금은 위원회에서 총무과와 국제국, 의사국의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어 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회의록을 편집하며 간접적으로 회의를 접했다면 지금은 회의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물론 속기와는 거리가 먼 일을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속기사분들의 현장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어느 순간 짬을 체크하고 속기사의 동선을 확인하고 ‘이건 타고’ 있네’ 생각하고 발언자를 확인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1) 타다 : 회의장에서 속기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사용하는 국회 의정기록과만의 고유한 표현임



솔직히 이 글을 쓰면서 속기란 무엇이고 속기사란 어떤 분들인지 논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이 속기계를 보시는 분이라면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체험을 솔직히 풀어서 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별로 없었다. 단지 시험에 합격한 것 말고는…… 이후에 내가 어디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1년도 안 되어 위원회로 갈지 몰랐던 것처럼.

1년 전 속기과로 가라는 인사명령에 어리둥절한 상태로 인사를 드리러 갔다. 바로 그 느낌을 비유한다면 여자들만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나 혼자 올라탄 느낌이었다. 이곳저곳 돌며 인사를 해도 보이는 분들은 거의 모두 여성분들. 아, 이 긴장감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래도 내가 속기1과2계로 처음 갔을 때 했던 인사말을 기억한다. “조직에 녹아들겠습니다!” 정말 잘 녹아들었는지 내가 판단하긴 어렵지만 몇 해 근무한 것 같다는 말은 종종 들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꽤 적응을 잘한 모양이다.

속기과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조직과 참 달랐다, 일단 남녀 비율부터 희식 문화까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사내다움을 포기한 순간 평온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명제를 되새기며. 허나 오해는 하지 말길. 노래방에 가면 부르는 애창곡이 있다. “난 남자다”라는 곡이다. 가끔 동료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밝히곤 했다. 아마 이걸 커밍아웃에 가까울지도. 이 부분은 그냥 웃고 넘기시라.^^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늘어놓았다. 이제 일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회의록을 편집하면서 자부심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꽤 큰 혜택을 받는다 생각했다. 20년 세월 넘어 속기를 해 오신 베테랑 속기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들어오



자마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천한 내가 편집을 담당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또 회의장의 현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만든 원고를 내가 빨간 펜으로 빼고 고치고 하는 일(나는 피가 뚝뚝 흐르는 칼부림같이 느낀다) 역시 분에 넘치는 일 같았다.

작년에 회의 도중 모 의원이 모 수석에게 “내가 너한테 물어봤냐?”라고 반말을 해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영상회의록을 들으며 회의록을 편집하다 원고에서 미묘한 부분을 찾게 되었다. 내용상 억박지르는 것 같지만 어감상 다른 상황이었다. “!”를 “.”로 바꿔야 했다. 이럴 때 나는 갈등하게 된다. 회의의 현장감이 담긴 원고를 내가 칼질을 해야 할 때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너무 미시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묻겠지만 역사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한다 생각하면 쉽사리 넘길 일이 아니었다. 그걸 누가 보겠나 물어도 누군가는 볼 테니까.

회의록을 편집할 때 요령을 피울 수 없었다. 내가 모셨던 서기관님 두 분의 카리스마와 예리함 덕분이다. 가끔 회의록을 보다 보면 잠이 쏟아져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다. 이때 편집했던 원고는 틀림없이 두 분의 칼부림으로 선혈이 낭자했다. 내가 다 찢리는 것 같았다.

서기관님의 예리함에 역사의 한 부분이 정정된 일이 있었다. 회의록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주역들의 이름(황윤길과 김성일 vs 김상헌과 최명길)을 헛갈렸다. 실제 의원의 발언은 있는 그대로 기록되었지만 주역의 이름이 바뀐 상태였다. 임진왜란 때의 김상헌과 최명길이라는 속기록으로 남을 뻔했다.

이리도 실수투성이었던 사람을 믿고 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리도 빨리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아쉽고 죄송스럽다.



나는 가끔 국회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꺼내 보곤 한다.

“지칠 때마다 전 국회사무처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힘을 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필기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봤을 때,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제게 국회 사무처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신껏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중략-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나는 친정이 그립다.

첫 발령지인 의정기록과는 내게 친정과도 같다.(또 친정이라는 표현에 오해는 마시라) 어디선가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관계 지향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빌리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의정기록과의 조직 문화는 관계 지향적이다. 경쟁보다는 연대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정의는 다만 내 개인적인 판단임을 밝힌다. 위원회와 비교해 봤을 때도 나는 의정기록과에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 따뜻한 마음이 넘쳤던 바로 그곳, 친정이 그립다.





# 내가 직업병을 가졌다고?

이 경 진 기자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조건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질환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직업병이다. 혹시 ‘VDT 증후군’ 이라고 들어 봤는가? 속기 업무를 하는 당신, ‘VDT 증후군’ 을 눈여겨보라.

우리는 매일 회의록 작성을 위해, 조서를 꾸미기 위해, 등등의 여러 업무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해 속기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컴퓨터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함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일 것이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키보드를 치는 VDT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다고 하여 ‘VDT 증후군’ 으로 불리는 이 신종 질병은 정보화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복병처럼 나타나 우리 속기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VDT 증후군

컴퓨터, 모니터 등 VDT를 보면서 장시간 작업을 하고 난 후 생기는 VDT 증후군은 다양한 증상을 수반한다.

첫 번째,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근육이 뭉치는 느낌이 들면서 근

육의 통증이 느껴지는 근막동통 증후군과 요통이 생기기 쉽다. 또 손목의 신경이 눌려져 손가락이 저리게 되는 수근관 증후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근육이나 말초신경의 이상으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 등에 통증이 생기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 어깨가 빠근할 때 뒷목 근육 풀어주기

뒷 목에는 정중앙의 독맥과 독맥 양쪽을 지나는 족태양방광경이 흐르고 있다. 족태양방광경을 따라 근육을 자극해주면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개운해지며 발끝까지 기운이 통하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책상에 앉은 채 할 수 있는 자극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두개골과 경추가 연결되는 부위인 정중앙에 놓고 꼭꼭 눌러준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한다.
- 2** 팔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마주하게 한 후 뒤로 최대한 벌려준다. 벌린 상태에서 3초 정도 유지시킨다.  
이 동작을 3회 정도 반복한다.  
이 동작을 양쪽 어깨뼈 사이와 등뼈를 따라 양쪽의 기 순환을 도와 통증을 제거하고 피로를 풀어준다.

이상의 동작과 더불어 평소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목운동을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이다.

두 번째, 눈의 이물감, 충혈, 눈부심 등 안구 건조증이나 근시 혹은 굴절 이상의 안과 질환이 생기기 쉽다.

눈이 충혈되었거나 피곤할 때에는 조금 먼 곳을 바라보면서 눈을 쉬게 해주거나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효과적이다. 눈을 자주 깜빡여야 하며, 장시간 집



중하는 것은 눈 건강에 좋지 않다.

세 번째, 마우스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 또는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반복적인 손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손가락과 손목, 어깨 등에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다.

손목에는 신경과 혈관, 인대가 지나가는 수근관이라는 통로가 있다. 마우스 증후군, 즉 손목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수근관 통로가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으로 통증으로 아플 뿐 아니라 손이 저리고 손가락이 화끈거리며 아침에 손이 굳거나 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마우스는 손목이 책상에 닿은 자세에서 손을 위로 꺾은 자세를 요구하는데 이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 손바닥 안의 힘줄에 무리가 가게 되고 손목의 근관이 좁아져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주로 컴퓨터 키보드나 장시간의 마우스 사용, 손빨래를 많이 하는 주부, 연장을 많이 다루는 목공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 ✧ 마우스 증후군 완화시키기



#### ● 실행

- I. 실행지는 바로 선 자세를 취하세요.
- II. 실행지는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양손을 깍지 끼우고 머리 위로 최대한 올리세요.

● 운동횟수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실시하고, 한 번 실시할 때 10회를 반복하세요. 1회 10초를 유지하고, 1회 실시한 후 10초간 쉬세요.



● 실행

- I. 실행자는 바로 선 자세를 취하세요.
- II. 한쪽 손을 그림에서와 같이 팔꿈치 관절을 90도 정도 구부리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끔 하세요.

III. 실행자는 반대쪽 손을 이용하여 손바닥을 천천히 아래 방향으로 끌어당기세요.

● 운동횟수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실시하고, 한 번 실시할 때 10회를 반복하세요. 1회 동안 10초를 유지하고, 1회 실시한 후 10초간 쉬세요.



● 실행

- I. 실행자는 벽에 바로 선 자세를 취하세요.
- II. 한쪽 팔을 쭉 펴서 벽에 가져다 놓으세요.
- III. 실행자는 최대한 벽 반대방향으로 머리를 돌리세요.

● 운동횟수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실시하고, 한 번 실시할 때 5회를 반복하세요. 1회 동안 60초를 유지하고, 1회 실시한 후 30초간 쉬세요.





● 실행

- I. 실행자는 바로 선 자세를 취하세요.
- II. 한쪽 손목을 반대 손을 이용하여 받쳐든 자세를 취하세요.
- III. 실행자는 천천히 받쳐진 손목을 천장 쪽으로 들어올리세요.

● 운동횟수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에 실시하고, 한 번 실시할 때 5회를 반복하세요. 1회 동안 60초를 유지하고, 1회 실시한 후 30초간 쉬세요.

네 번째, 거북목 증후군은 상체를 앞으로 쭉 빼고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보게 될 경우 마치 거북목처럼 목이 늘어지고 구부정해지는 증상이다. 바로 섰을 때 귀 중간에서 아래로 가상 선을 그었을 때 그 선이 어깨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외형상 보기 안 좋을 뿐 아니라 목과 어깨 통증을 불러오고 목부터 척추 전체의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리에 앉을 때도 의식적으로 허리를 세우고 앉도록 노력하고 한 가지 자세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자주 바꿔 주는 것이 좋다. 모니터는 자신의 눈높이(스크린 상단의 끝 정도)에 맞추고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당당히 편 자세를 취한다. 엉덩이는 의자에 깊숙이 대고 허리는 등받이에 밀착시킨다. 다리는 꼬지 말고 몸통과 무릎은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

▼ 거북이목 막아주는 스트레칭



**목·어깨 스트레칭** ① 양팔을 벌린 다음 팔목과 손목을 구부려 뒤로 젖힌다. ② 목은 뒤로 숙여주고 ③ 팔과 어깨를 뒤로 당기면서 충분히 스트레칭해 준다.



**목·어깨·등 스트레칭** ① 양손을 엇갈려 양쪽 어깨 뒤쪽을 감싸 안는다. ② 목을 앞으로 충분히 숙여주고 ③ 손으로 어깨를 앞으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스트레칭해 준다.



**허리·엉덩이·다리 스트레칭** ① 다리를 앞으로 꼬고 선다. ② 상체를 앞으로 충분히 숙이면서 스트레칭해 준다.



**하체 스트레칭** ①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뻗어 올린다. ② 이때 무릎은 완전히 펴지도록 한다. ③ 다리를 최대한 들어올린다.

이렇듯 VDT증후군은 다양한 증상을 수반하는 신중 질병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컴퓨터를 사용할 때 머리를 앞으로 숙여 어깨 근육이 긴장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여 생기는 어깨 통증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 가운데 하나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 어깨와 목 부위, 팔, 허리까지도 아프게 되는데 이러한 근골격계 이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대법원을 찾아서

박 윤 혜 기자

개혁 · 개방이 대세인 시대이다. 사법부 역시 인권을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 개혁을 진행 중인데 사법부의 사법 개혁안 중 속기인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 · 녹음 및 영상녹화) 제1항에 “영상녹화”가 추가됨으로써 속기사의 속기 방식에 의한 조서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물까지의 조서 인정 여부에 법원 속기사 및 예비 속기인 그리고 모든 속기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번 속기계에서는 사법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에 주목하고 탐방을 가기로 했다.

그저 막연하게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만 알고 있었던 대법원, 탐방을 위해서 좀 더 대법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사건,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및 항소법원의 결정 · 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등을 중심으로 재판하는 곳이고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의 총무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사법부 정책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고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다.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대법원 규칙 제정과 개정, 관례의 수집·간행,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에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한다.



물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권한과 역할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고 알아야 하겠지만 내 자신이 국회 속기사로 근무를 하는 속기인으로서 대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의 현황과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일을 하는 방식, 다른 일반 법원과의 차이점, 법정 디지털녹음 시스템 도입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대법원에 근무하는 속기사들을 만나기로 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 탐방을 갔을 때 생각보다 적은 인원인 2명의 속기사만이 근무하고 있어서 놀랐는데 대법원 역시 3명의 속기사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한속기협회 기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한속기협회의 회원들이 근무하는 현황



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준비 없이 취재를 나가게 돼서 좀 부끄러웠다. 전국법원 속기사협회 등과의 교류가 잘 되고 우리 협회에서 국회나 의회가 아닌 법원 등 속기인들이 진출해 있는 곳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3명의 속기사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속기 업무를 주로 하는 국회나 의회와 달리 부속실에도 근무하는 관계로 2명의 속기사와만 만날 수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줘서 너무 고맙았다.

국제심의관실 부속실에 근무하는 공은미 씨와 형사과에 근무하는 장은영 씨가 잠시 시간을 내 줘서 이번 대법원 탐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려는데…… 법원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들은 국회의 시스템이 궁금했던지 먼저 국회의 업무 방식 등에 대해 물어봐서 잠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질문에 답변을 했던 기억이 난다.

대법원에 속기사가 근무하게 된 것은 2004년부터라고 한다. 일반 법원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속기사가 근무한 걸로 알고 있었기에 그것도 참 의외였는데 그전에는 대법원에서는 속기사가 필요할 경우 일선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해 파견을 받아서 업무를 해 왔다는 말에 조금 이해가 되었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3명 모두 2004년부터 근무를 했지만 법원에 입사한 것은 96년이라고 하니 10년이 넘게 법원에서 근무해 온 셈이었다. 국회나 의회처럼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 고등법원, 중앙법원 · 지방법원을 1군 · 2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 근무하다가 대법원으로 왔으며 2명은 부속실에서, 1명은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부속실과 형사과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속기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곳의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으며 대법원이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법률

심을 하기 때문에 재판에 증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법정 속기는 일반 법원보다 훨씬 적게 하고 대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주요 회의가 있을 때 2인씩 속기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속실에 근무하는 속기사도 있기 때문에 회의 속기를 하러 가게 되면 부속실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속기 업무를 하기에 좋은 업무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큰 사건은 공개변론을 하기 때문에 법정 속기를 한다기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말들의 반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종종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상지대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을 꼽았다. 법정 속기를 자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정 안에 속기석이 따로 돼 있지 않고 하게 될 경우 그때그때 자리를 마련해서 속기를 하며 교대 없이 재판 시작 시부터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정 속기나 회의 속기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다.

법정기록시스템이 도입되면 대법원에 근무하는 속기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법정기록이나 영상녹화 이런 시스템은 상고사건이나 재항고사건을 법률심으로 다루는 대법원보다는 일선 법원에 먼저 도입이 되고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대답이었다.

사실 우리가 대법원을 탐방하기로 한 것은 요즘 사법 개혁을 주도하는 곳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면 이런 시스템이나 속기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였는데 재판 시스템에 대한 확실한 조사가 없이 막연한 생각만으로 대법원 탐방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반성을 하게 했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해 영상녹화 등 재판 시스템이 일선 법원에 먼저 적용이 될 거라는 얘기에 다음번에는 그쪽으로 좀 더 취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좋은 얘기를 해 준 두 사람이 고맷다.

2004년에 발족된 전국법원속기사협회의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대



법원으로 온 후로는 사실 속기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 쪽에 치중하게 되면서 교류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속기협회 행사 등 속기협회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으로 짧은 만남을 끝냈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법정디지탈녹음, 영상녹화 등이 도입되면 어찌됐건 법원 속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것을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적응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속기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스템과 속기인이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속기협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그게 법원의 문제이지만 앞으로 곧 속기인 모두가 마주하게 될 커다란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 속기협회가 법원이나 지방의회 모두와 유기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했더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대한속기협회에 전국법원속기사협회가 가입한 후 속기협회에서 법원 회원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사 참여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왜인지…… 나부터도 취재를 하는 오늘의 이런 생각들을 속기계 발간작업이 끝나면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 탐방을 마치면서 함께했던 속기사들과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대법정 안과 대법원 정문에서 우리끼리 사진을 찍으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바쁜 일과 중에 우리와 함께 해 준 공은미, 장은영 속기사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더불어 앞으로의 대한속기협회 행사나 속기계에서 더 많은 법원의 얘기들과 법원 회원들을 만날 수 있기를……

# 법정기록방식의 변화 동향

권 초 룡 기자

## 1. 서론

지난 3월 본 기자는 법원에 디지털 녹음이 도입되고 녹음물·영상녹화물이 조서에 갈음될 것이라는 소문(?)을 접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속기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던 차에 속기 관련한 인터넷사이트에서 법원 취업을 목표로 속기를 수련하던 취업준비생들의 걱정이 담긴 글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법원 내부에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지 전말을 파악할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 최근 법원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기록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한 취재 결과를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 2.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의 확산 그리고 속기인력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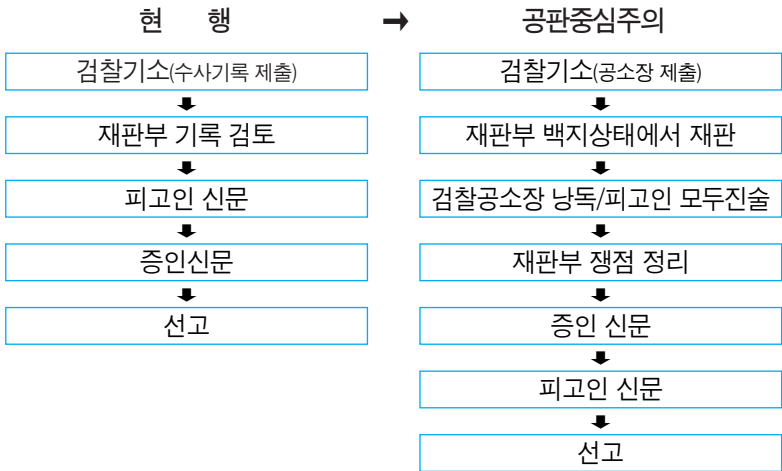
법원에서 디지털 방식의 법정녹음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판중심주의 영향이 가장 크다. 공판중심주의란 간단히 말해 재판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공판중심주의가 법정기록 양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가? 다음의 도식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재판 절차 변화(형사)



위 표에서와 같이 법원의 공판 방식은 그 절차와 그에 따른 소요 시간이 길어지고 말의 양 또한 많아지게 된다. 왜냐 하면 ‘수사기록에 기반을 둔 질문에 예, 아니오의 짧은 대답’ 형태가 ‘짧은 신문과 긴 대답’의 형태로 역전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30일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일반인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배심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이런 변화에 부응할 기록의 충실성에 대한 관심은 속기방식에 의한 조서작성으로 초점이 이동한다.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공판중심주의를 맞이하는 법률 소비자들에게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십시오. 증거·증인 신청도 하십시오. 할 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언은 했는데 그 많은 말들과 상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이란 말인가? 현재 속기인력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바로 이것이 법정기록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의 출발점이다.

### 3. 법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디지털 방식의 법정녹음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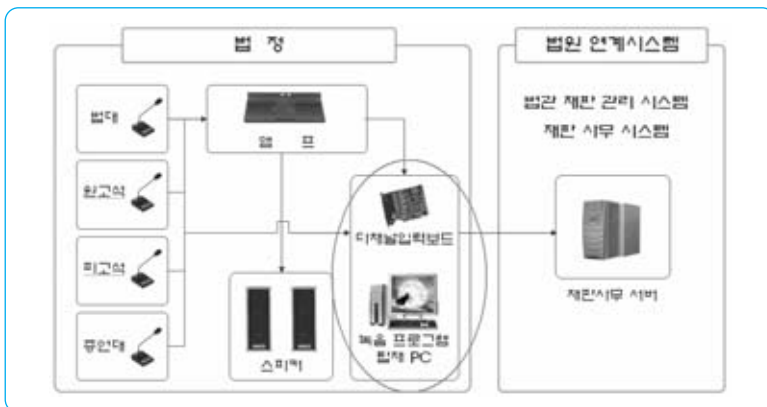
#### 가. 경과

법원은 2006년 6월부터 기존의 녹음대(錄音帶)를 대신해서 법정 내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녹음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이어 2006년 10월~12월 전국 모든 법정을 네트워크 연결했으며 이어 모든 법정에 컴퓨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전국 본원의 모든 형사법정에 법정녹음시스템을 설치 완료한 후 3월 초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통해 그간의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곧바로 전국 본원의 형사법정에 한해 시범운영이 개시되었다.

법원은 2007년 3월~7월 간의 1차 시범운영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표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예규 등을 정비한 후 2007년 내에 전국의 나머지 법정에 시스템을 확산할 계획으로 있다.

#### 나. 시스템 개요

디지털 방식의 법정녹음시스템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 시스템 구성도 ●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회의와는 달리 법원은 사건번호별로 분절되어 재판이 진행된다. 참여관은 법정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재판사무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재판부의 재판목록 중 해당 사건번호를 선택하여 녹음을 시작하고 녹음 중간마다 발언 시간이나 발언 취지를 간단히 메모할 수 있다.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재판 중에 기록했던 메모와 발언자(판사·검사·변호인 및 피고인·증인) 별로 녹음된 파일을 이용하여 필요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녹음된 이 파일은 1차로 법정녹음용 PC에 저장이 되고 주기적으로 해당법원 파일 서버에 저장되며 향후에는 주기적으로 대법원 전산센터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법원에 저장이 완료된 후에는 타 법원에서 접근이 필요할 경우(상소된 경우 등) 녹음된 디지털 파일도 기록과 함께 상급법원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 4. 법원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

가. 법원은 재판진행상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조서와 판결을 작성할 때는 물론 텍스트의 한계로 인해 증명해 낼 수 없는 조서에 대한 이의를 비롯해 변론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법정에서 소란이 예상되는 경우 채증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중요사건이나 역사적인 사건 등에 대한 생생한 기록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속기사가 참여하는 부분은 증인신문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건 당사자의 숨결까지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 공판중심주의의 전초 단계인 것인지 근래에는 법원속기사들이 피고인신문 시에도 참여하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전개될 때 현재의 인력 사정으로는 피고인신문 등 모든 기일에 속기사



사건목록

사건번호	사건명	작판부	기일시간	녹음시간
2006고단1004	사기	형사1단독	14:00	
2006고단215	사기	형사1단독	14:00	

다음사건선택    사건선택시자동녹음시작    선택    취소





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원 일각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속기원이 아닌 사무원)의 재교육을 통해 속기 인력으로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미 그러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다. 따라서 실패한 경험을 재시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설령 다시 시도하여 속기원과 함께 사무원이 속기 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래서 만일 법원 측의 의도대로 녹음물·영상녹화물이 조서를 갈음하게 될 경우 이러한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 5. 맺음 - 변화의 바람

법원의 기록방식의 변화 추진을 관망하며 본 기사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됐다. 현재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7월이나 돼야 시범실시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시범실시 결과가 나와 봐야 이 법정기록방식의 변화가 법원속기사들에게 그리고 법원을 취업처로 목표하고 속기를 배우고 있는 속기 준비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법정녹음시스템이 재판과정에 유용한 도움을 줬다는 평가가 나올 수도, 아니면 기대와 달리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리고 법원 측의 기대대로 속기인력의 부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아니면 속기의 중요성과 속기사의 중요성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리고 법정기록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담당자의 말처럼 이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선진국의 법정처럼 언젠가는 속기사의 참여 비중이 줄어들기야 하겠지만 그것은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속기사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극단적이고 조급한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속기계에 또 한 번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며 그 신호탄이 법원으로부터 쏘아 올려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2005년 국회에 의사중계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당시에 국회속기사들이 느꼈던 위기감과 이번 법원에서의 일련의 시도에서 느꼈을 법원속기사들의 위기감…… 앞으로는 또 어떤 위기와 우리는 맞닥뜨려야 할까?

국회에서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한 영상회의록 서비스가 개시될 당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던 활자 회의록의 필요성과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요원하게 느껴지던 음성인식이 실제로 다가와 우리 속기사들의 입지를 뒤흔들 수도 있고 디지털 아카이브 등의 새로운 시도 또한 우리 속기사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미증유의 위기도 아니며 위기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붙어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어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위기에 놀라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함께 변화하고 진화해야만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의 도전에 응전하지 않거나 신기술 주도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다른 변화에 우리가 흡수될 것이 아니라 속기인들이 오히려 기술을 흡수하고 사용해 속기의 진화를 주도해야 한다.

도전 받지 않는 역사는 없다. 도전자의 도전은 위기이나 도전에 맞서 싸우며 적응하고 극복한다면 그 도전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 원동력의 중심은 이미 속기사로 진입해 있는 우리, 기존 속기사들의 몫이다. 한동안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침체돼 있는 전국법원속기사협의회는 적극적인 응전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번 일을 비단 법원속기사들만의 일로만 보지 않고 함께 고민하면서 속기인들의 결속과 정보교류에 가일층 노력하는 대한속기협회를 기대해 본다.



# 꿈은 이루어진다

최 성 향

## prologue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쿵- 쿵다쿵다 쿵다쿵다

도대체가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다.

쿵다쿵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향아, 축하한다.]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직후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아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곳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친분이 있던 선배님이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

.....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나의 미래,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내가 국회속기사가 된 것이다.

## ‘속기’와의 만남 그리고 국회속기사!

2003년, 4월.

당시 나는 대학교 4학년이었다. 이제 7~8개월 후면 사회에 발을 내딛어야 하는 취업준비생. 경제학과를 전공 중이던 나는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며 은행이나 증권사 쪽 취업을 염두에 두고 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증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으며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원하는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분야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진정 즐겁고 보람 있게 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던 그때 어머니께서 ‘속기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나에게 한번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고 흥미 있으면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고 권해 주셨다.

속기? 속기사? 생소한 단어였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에 속기란 단어가 계속 내 주위를 맴돌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속기자격증 취득 후 취업처가 자막방송, 속기사무소, 프리랜서, 법원, 국회 등이었다.

국회? 국회속기사라고? 국회속기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역사의 한 가운데서 역사를 기록하는 직업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나를 사로잡았다.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종로의 컴퓨터속기학원으로 가서 등록을 하고 바로 속기계로 뛰어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꿈은 국회속기사가 되는 것이었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국회의 국회속기사!

등록 후 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매일매일 약 3~4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원에 나가면서 연습을 했다. 중간에 두 달 이상 속도가 오르지 않는 슬럼프에 봉착한 적도 있었지만 주변 선배들의 조언과 가족들의 격려로 2004년 2월에 비로소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이 끝은 아니었다. 국회에 들어가려면 학과 공부도 해야 하고 속기 실력도 더 쌓아야 했다.

우선 나는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했다. 속기사로 들어간 거였지만 내가 하는 일은 일반 사무직에 불과했다. 속기를 쓰는 일은 단순 받아치기 정도여서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연습해서 자격증을 땀는데 고작 단순 업무에만 속기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 회의가 밀려 왔다.

###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2005년, 12월.

기다리던 국회속기사 채용 공고가 났다. 13명의 속기사를 뽑는다는 공고였다.

이건 분명 기회였다. 매년 4~5명의 속기사를 뽑아 왔었는데…… 훗날 국회에 와서 들은 바로는 국회법상에 소위원회 회의도 전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13명이라는 인원을 확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를 다니면서 12월에 공무원학원을 등록했다. 일이 끝나면 밥도 먹지 못하고 학원으로 달려가 10시까지 수업을 들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마냥 기뻐했다. 그리고 2006년 2월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쳇바퀴를 도는 듯한 수험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아침에 속기학원, 오후에 공무원 학과 강의를 들었다. 하지만 쉽게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모의고사를 치르면 실망하고 이리다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보냈을까? 한참 매일, 매주, 매달의 계획표를 짜고 시간표를 짜며 그에 맞추어 준비하던 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시험이 두 달 남짓 남은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었다. 지병이 있으셔서 공부하는 내내 노심초사하면서도 많이 신경 써 드리지 못함에 죄송했는데, 그래도 꼭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리라 다짐하고 미안한 마음을 뒤로 했었는데 말이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는 다시 공부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펜을 잡으면 머릿속이 멍해져서 책을 볼 수가 없었다. 이대로 정말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할 듯 싶기도 했었다.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러기에는 지난 몇 년간 품었던 내 꿈이 너무 아까웠다. 그리고 아빠와 가족들, 응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했다. 앞으로 더 진진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는 개구리처럼 한없이 마음도 몸도 움츠러들었지만 다시 펼 날을 기대하며 내 꿈을 다시 마음에 품었다.

### 꿈은 이루어진다.

필기시험 그리고 합격발표, 실기시험 합격발표 그리고 면접. 숨 막히는 2006년의 7월이었다. 그리고 8월 드디어 최종 합격을 했고 2007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꿈이 내게서 멀게 느껴져서 힘들 때마다 한강다리를 지나며 불 켜진 국회를 마치 헤어진 애인을 바라보듯 마음 아프게 바라보았었는데 이제는 같은 곳을 지날 때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국회를 바라보게 되었다. 너무나 국회속기사가 되고 싶어서 인터넷 속기 관련 커뮤니티에 ‘국회속기사’라는 ID를 쓰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속기를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바로 그 ‘국회속기사’가 되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 epilogue

‘국회’라는 얘기만 들어도 설레이고 뉴스에서 국회를 비추기만 해도 눈을 떼지 못했는데 어느덧 이곳에서의 생활도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한참 바쁜 정



기회 때 입사한 동기들과 달리 나는 비교적 한가한 비회기 때 입사를 해서 아직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의 숨가쁘게 바쁜 상황을 이야기로만 접한 상태이다.

아직 얼마 경험하지 못했지만 회의를 접하고 그 안에서 직접 속기를 하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에는 긍지라는 단어가 나를 채우고 속기를 하는 내내 손에는 힘이 생긴다.

회의록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위원회 회의를 2인1조가 속기를 하는 경우 25분을 속기하는데 그 25분을 회의록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몇 배 이상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 전문용어들에 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하고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틀리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완성된 원고를 주무님, 편집 선배님, 계장님이 검토하시고 그 이후에도 초교, 재교 등을 거쳐 최종 오케이가 나면 비로소 회의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국회의 회의록은 그야말로 도자기가 여러 번 불에 구워져 단단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과정과 흡사하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속기를 단순 받아치기 정도의 기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마음이 답답해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곳, 국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회의록을 만들어가는 데 대한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다.

그렇게 바라보고 원했던 국회속기사가 되었고 이제 이곳 국회도 나의 일상이 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처음 내가 속기를 접하고 국회속기사가 되고자 했던 그 때를 항상 떠올리며 대선배님의 말씀처럼 '일년을 일해도 십년을 일한 것 같은 실력, 십년을 일해도 일년을 일한 것 같은 마음가짐' 을 가진 속기사가 되고 싶다.



# 나의 멋진 인생

서 상 경

속기계의 ‘새내기 속기사’ 라는 코너에 나의 글을 실는다고 한다. 그래서 난 내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추억으로 남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속기를 처음 시작한 것은 고2 때였다.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던 나는 공부에 흥미도 없었지만 사무경리직으로 일하다가 대학을 가는 그저 그런, 실업계 졸업생들의 뻘한 코스는 밟기 싫었다. 뭔가 전문직을 갖고 싶었다.

내가 속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컴퓨터학원 선생님께서 처음 들은 것도 같고, 패션잡지 기사에서 유망직종 중 하나로 나와서 알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속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무척이나 열심이었다. 내가 벌써 속기사가 된 것처럼 즐겁고 들뜬 마음에 속기사가 되었을 나를 상상하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다. 이때의 난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과연 예상이나 하고 있었을까?

교복을 입고 아저씨들 서류가방 같은 까만색 속기 가방을 자랑스레 들고 다니며 어린 나이에 다부지게 시작했건만 속기를 배우는 과정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의지는 강했지만 실천은 약했던 탓이다. 한 달을 등록하고 두 번을 나갔던 것 같다.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 사무경리직으로 취업을 했지만 다시 속기가 생각났고, 배우고 싶었다. 그렇게 방황하던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종로에서 다시 학원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지가 약했던 탓일까? 속기를 다시 배우고 그만두고 또 배우길 여러 번. 나는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긴 시간을 힘들게 공부한 뒤에야 자격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속기로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곳은 법원이었다. 계약직이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이었던 법원에서의 나는 이제야 정말로 속기사가 된 것 같았다. 속기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법원이란 곳은 내 평생 한 번 올까말까한 곳이 아닌가!

내가 맡은 부의 부장판사님과 배석판사님들은 모두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고 또 너무 멋졌다. 특히 재판이 시작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고 나면 위풍당당하게 법복을 휘날리며 들어서던 그 모습이란!

국회속기직에 합격한 후 내가 법원을 좀더 일찍 들어갔더라면, 아니면 시험에 떨어져 법원을 더 다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곳이다.

속기를 시작할 때부터 목표는 국회속기사였다.

그렇지만 시험에 떨어지기를 여러 번, 그것도 필기시험에서만. 솔직히 실기에

는 자신이 있었다.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것이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었던 정말 내 인생의 암흑기였다. 친구들은 모두 번듯한 직장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있거나,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생활을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저녁에 야간대를 다니며 열심히 자기 인생을 찾아가고 있는데 난 이게 뭐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았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시며 둘째 딸이 하는 일에 좀체 간섭하지 않으시던 엄마의 잔소리가 심해졌다. 한창 나이에 집에만 처박혀 있는 딸이 못마땅했으리라……

차라리 열심히 공부라도 했다면……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렇게 어정쩡한 내 생활은 계속되었다. 아마도 나는 속기직이 다른 직보다 커트라인이 낮다는 이유로 너무 안일하게 공부했던 것 같다. 사실 커트라인만 낮았지 범위며 과목은 똑같은 걸. 자격증만 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산 넘고 산인, 정말 나에게서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종로학원에서 국회속기직 대비반 1기로 같이 공부하던 언니들이 하나 둘씩 합격하고 나는 4수만에야 그렇게 간절했던 국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번의 국감을 다녀오고, 첫 번의 정기회를 마치고, 여러 번의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나는 내가 정말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예결 소회의장을 들어갔다 나올 때면 관련 정부기관 사람들이 회의 현황을 묻는 말에 그저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내가, 나도 주무님처럼 그 물음에 시원하게 대답을 해 줄 수 있다면……

그런데 나는 회의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용을 파악하기는커녕 얼굴은 시뻘게치고 손은 덜덜 떨리고 완전 어리버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이 소심한 겁쟁이……

국회만 들어오면, 국회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국회에 들어온 다음으로 미뤘는데, 꽃다운 내 20대 초반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일에 치여 사람에 치여 모든 게 나에게는 다 어렵기만 했다.

물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정기회 때 회의가 늦게 끝나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의 뿌듯함, 이 뿌듯함도 피곤에 찌들어 며칠 못 가긴 했지만.

야근한답시고 남아서 일하는 시간보다 로텐더에서 동기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이 더 길었던 날들, 이 부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나의 가장 큰 활력소다. 선배님들이 사 주시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또는 동기들과 점심 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산책할 때의 이 행복함이란……

핑계라면 핑계지만 그동안 원고하라 회의 들어가라, 또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해서 그냥 미루기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사실 조금 창피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원하던 속기사라는 전문인으로서의 나름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던가! 그걸 잊고 있었다. 내가 국회속기사 서상경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한다는 것을……



## 21세기의 조선왕조실록을 꿈꾸며

유 희 정

2005년도 더운 여름날이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취업난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던 나는 졸업을 조금 늦추고 취업 준비를 하자는 마음에 특별한 계획도 없이 휴학 중인 상태였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속기사' 라는 말이 머리에 스쳐갔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속기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단어를 무작정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서야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대충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종이접기나 피아노 연주 같은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했고 키보드 타자 속도도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막연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내가 국회속기사가 된 계기이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가 이곳에 와서 일하기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인터넷 검색으로 학원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집에서 제일 다니기 편한 학원을 골라 무작정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그리고 며칠 후에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새롭고 낯선 일에 쉽게 도전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이 일에서 만큼은 웬지





두려움이 없었고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나서 학교에 다시 복학하였고 학교 수업 후에 학원에 다녔다. 몸은 좀 힘들었지만 오히려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니 더 보람됐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국회시험 공고가 날 때쯤 내 속기 실력은 3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합격할 거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다시 휴학계를 냈다. 비록 남들은 이루기 힘든 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만약 내가 그때 이번 시험이 아닌 그다음 시험을 목표로 했다면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자격증 시험과 국회 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다. 지루하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지만 그때마다 국회속기사의 꿈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학원을 다녔는데 동작대교를 지나갈 때면 아주 멀리에 국회의사당 돛이 보인다. 그것도 맑은 날에만 겨우 볼 수 있었다. 그런 작은 것에도 동기부여를 해 가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학원에서 나누어 준 진도표를 열심히 썼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그날 그날 테스트 한 후에 점수를 기록하면서 점차 늘어가는 실력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 속도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는 기쁨이 더 컸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에 몰두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다른 학생들은 자격증을 따놓고 필기시험을 준비했지만 나는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안고 있었다. 국회시험에 앞서 있었던 자격증시험에서 너무 긴장했던 나는 2급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기시험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헛수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국회 시험 날짜가 다가왔다. 실기시험을 볼 때까지도 자격증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 확신도 없었다. 자격증 시험 결과도 자신이 없었고 국회 시험에 붙는다고 해도 자격증이 없으면 불합격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필기시험을 앞두고 학원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은 속기를 잠시 중단하고 필기 공부를 했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계속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격증 결과 발표가 국회시험이 끝나고 있었던 탓에 나는 시험기간 중에 정말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합격했고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잘 맞는 행운도 있었다.

국회에 합격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던 어리석은 생각은 당연히 빗나갔다. 학원에서 선생님이 또박또박 불러주던 낭독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회의록의 형식에 맞추어 원고를 하는 것도 익숙치 않다. 나에게는 생소한 전문적인 회의 내용도 이해해야 한다. 또 자격증 시험에서는 띄어쓰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맞춤법, 띄어쓰기는 공부하지 않았던 게 후회되기도 한다. 학원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공부였는데도 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많이 된다. 회의록은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유의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다. 마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주차를 배울 때 핸들을 우로 한 번 좌로 두 번 돌리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생긴다. 이 법칙은 실제 주차할 때 전혀 쓸모가 없다.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실제 적용이 가능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도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다.

국정감사 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고 예결특위 때문에 연말에는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한 원고가 회의록으로 찍혀 나오면 묘한 기분에 사



로잡힌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내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다. 또 발언하는 사람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녹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원고를 하기가 힘들지만 그걸 끝내고 났을 때 뭔가 암호를 풀어낸 듯한 성취감도 속기의 큰 매력인 것 같다.

어느덧 국회에 들어온 지 8개월이 넘었다. 아직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 오늘 내가 겪었던 일들이 뉴스에 나올 때면 정말 내가 국회에 들어왔구나 실감하기도 하지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시위를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본회의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 확인할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내가 국회에 있는 것이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기도 한다. 그렇지만 힘이 되는 동기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을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시는 주무님과 많은 선배님들, 계장님과 과장님들과 함께 조금씩 이곳에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다. 속기사라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직업을 택해 이 일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탓인지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끈끈한 정이 묻어나는 곳인 것 같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세월이 지나면 부실해지고 낡아지겠지만 국회의회의록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져 대한민국 역사에 오래도록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역사서로 인정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역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속기협회는 2007년 1월 26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종합상가 5층 신동양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년과 다름없는 참석률을 보인 가운데, 안기철 총무이사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총회는 이어서 국민의례, 성원 보고,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갑작스런 정치일정 변경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고흥길 회장을 대신해 제 14회 전국속기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인사말씀은 최황수 부회장이 대신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의안건 심의는 관례대로 김창진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총무이사의 2006년도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 결산보고와 유순태 외부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또한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세 번째 부의안건인 감사 선임의 건에서는 최성주 감사와 유순태 감사를 재선임함으로써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0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 편집 후기

www.steno.or.kr

이제 일어나리라  
오아시스를 찾아  
끝없이 펼쳐진  
'월고'의 사막에서  
메달라 버린 '내면의 샘물'을 적시리라!

曹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교훈처럼  
성장의 기쁨과 쉽터의 안락함을 주는 속기계가 되었으면 했는데..... 아쉽고  
부끄럽다.

任

이 편집후기를 쓰고 나면 이번 속기계 작업이 끝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기쁜  
생각이 든다. 딱히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속기  
계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에..... 물론 책이 나오고 나면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  
쉬움이 남겠지만.....^^

朴

또 한 권의 속기계가 나왔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진다.  
정말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내게 홍보부 기자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지 않을  
날이 올는지.....

芝

'편집후기', 이것도 내겐 넘 어렵다. 이런 내가 홍보부 기자라니.....  
작년엔 결혼이라는 구실로 소홀했는데 이번에도 팀원들에게 미안한 맘이  
많이 남는다. 내게 '글'이라는 건 넘 어렵다.

眞

한마디로 말해 '묻어가기 대작전'. 다음 호에서는 좀 더 능동적인 권 기자를  
기대하시라~~

權

## 투고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 회지의 발간 취지인 만큼 회원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곳 : 본 협회 홍보부(국회 의정기록과)

TEL. 02)788-2371, 2471

홈페이지 : [www.steno.or.kr](http://www.steno.or.kr)

e-mail : [yooji019@assembly.go.kr](mailto:yooji019@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속기실무,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 납입 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  
(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는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 내 실 곳

- 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 회 비 : 농협 036-01-112844 이봉선(협회재정부장)



## §§ 속기요금표 §§

1998. 2. 8 시행

속기 기본료	1 시간 당	300,000원
녹음 재생	1 시간 당	350,000원
전문 분야	1 시간 당	350,000원
외국어 속기	1 시간 당	400,000원
요점 속기	1 시간 당	2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 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 시에는 상기 요금 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 외에 매시간당 50,000원씩 가산한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 협회의 직인이 없는 요금표는 무효임.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 단 법 인      대 한 속 기 협 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내)  
전 화 : 02)788-2371~6



## 速記界

**발행** : 2007년 6월 1일

**발행인** : 고흥길

**편집인** : 조영기

**기자** : 유점임 / 박윤희 / 김지숙 / 이경진 / 권초롱

**발행처** :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인쇄처** : (주)조양애드컴

**전화** : 02)788-2371~6

**FAX** : 02)788-3386, 3387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홈페이지** : <http://www.steno.or.kr>



##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